청양의 두레

임동권·정형호·임장혁 공편



青陽文化院

■ 편자 소개

임동권 충남 청양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저서『한국세시풍속연구』외 다수

정형호 충북 보은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저서『양주별산대놀이』외 다수

임장혁 서울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부교수
저서『기우제의 비교민속학적 연구』외 다수

※ 앞표지 사진 : 모내기 하는 모습
뒤표지 사진 : 소를 이용해 논을 가는 모습

청양의 두레

임동권·정형호·임장혁 공편



青陽文化院

발간사



청양문화원장 정재권

우리는 농경민족이었고 논농사의 일이 시작되면 작업을 합동으로 하는 두레가 생겨 구성진 풍장소리가 마을과 들에 퍼져 진동하였는데, 해방 후에 소멸되기 시작하여 60년대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두레는 마을 공동의 합동작업의 조직이다. 모를 심고, 논을 아시 매고, 두 벌, 세 벌 매기까지 합동으로 작업을 하였다. 집집마다 한 사람씩 노동력을 제공해서 일을 하였는데, 성인 남자가 없는 집에서는 아낙네가 새참과 점심참을 하는 등 허드렛일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두레가 성행하던 때에 농군의 성년식이라 할 수

이쓴 절차가 있었다. 20세기가 되는 해에 마을 어른들에게 술대접을 하던 풍습인데, 이것을 '꼬맹이 술'이라 한다. 그렇게 행사를 치른 후에는 성인 농부로 인정받아 어른과 품앗이를 할 수가 있었다.

농경 작업인 모심고, 논매는 작업을 혼자하게 되면 작업 추진도 어려워지고, 혼자는 심심하고 힘이 들기에 합동으로 일을 하고, 집단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풍장을 치고 농부가를 신나게 부르면, 고됨도 피로도 잊고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두레는 농사 이외에도 풀을 벨 때, 물푸기를 할 때와 여인들의 삼 삼기를 할 때도 있었으나, 역시 소멸되었다.

두레 작업이 사라진지 40~50년이 지났으니 두레를 경험한 80대의 촌로(村老)들이 거의 없어 조사하는 데에도 애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조사보고서는 우리 고장 청양의 생활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되리가 믿어진다.

이번 조사에 청양 출신의 중앙대학교 임동권 명예교수와 정형호·임장혁 교수, 그리고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학생들이 수고를 하셨다.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서 문

임 동 권

사람은 넓은 대지, 다양한 동식물이 존재하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기술과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을 곡식을 생산해야 했고, 일에 따라서 혼자 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집단을 이루어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집단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식량·채소·과일·목재·옷을 만들 천 등이 필요했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으니 혼자서의 일과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합력해서 일하는 공동 작업에 두레가 있었다.

『삼국지(三國志)』와 『후한서(後漢書)』의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1) 5월에 파종을 마치고 집단으로 신을 제사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즐겼으며, 10월에는 농사일을 마치고 역시 같은 제천(祭天)행사가 있었으며,

(2) 늘 10월이 되면 하늘을 제사하고 음주가무했다.

위의 두 기록은 약 2000년 전쯤부터 우리는 농사를 지었고, 5월에 씨를 뿌리고, 잘 자라서 풍년들기를 신에게 빌었고, 10월에는 풍년한 데 대한 신에 감사의 표시로 하늘에 제사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혼자서는 힘든 일과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농사일에 두레를 했다. 두레란, 마을 모두의 힘을 모아 합동해서 하는 공동작업(共同作業)의 조직으로 해방 전후 무렵까지 있었으나, 농경 작업이 기계화됨에 따라 두레는 사라졌다. 농촌에 있어서의 두레는 주로 5월 모를 심을 때에 성행했다. 모는 제 때에 심지 않으면 소기의 수학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농민 모두가 참여해서 두레를 하는 것이다.

두레는 각 집에서 남자 한 사람씩 참여하는 합동작업이다. 남자가 없는 집에서는 부녀가 나와 부엌의

허드렛일을 거들게 된다. 두레와 관련된 용어도 많아서 두레 때, 두레패, 두레꾼, 두레놀이, 두레풍장, 두레싸움, 두레 풀베기, 두레 물푸기, 두레 삼 삼기, 두레 장원(壯元) 등 두레와 관련된 용어가 많다는 것은 두레가 우리 농촌에서 매우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두레는 이미 사라졌으나, 다행이 두레를 체험한 연로한 노인들이 아직 남아 있어 조사할 수 있었으나, 머지않아 두레를 체험한 노인들마저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 시기 적절한 조사였으며, 이 조사보고서는 후세에 남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조사에도 중앙대학교 교수와 민속학과 학생들이 담당하였으며 조사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조 사 자 임동권(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형호(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임장혁(중앙대학교 부교수)

조사보조원 이덕우(중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석사과정)
김진영(중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석사과정)
오수지(중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석사과정)
김승유(중앙대학교 민속학과 4학년)
이지아(중앙대학교 민속학과 4학년)
심효윤(중앙대학교 민속학과 3학년)
김민우(중앙대학교 민속학과 1학년)
이연주(중앙대학교 민속학과 1학년)



목 차

발간사 / 3
서 문 / 5

Ⅰ. 공동노동으로써의 두레 / 11

1. 두레 ……12

2. 두레패의 구성과 역할 ……16

(1) 두레패의 조직 ……19

(2) 두레회의 ……25

(3) 두레패의 구성과 역할 ……34

3. 공동노동으로써의 두레 ……49

(1) 모내기 ……50

(2) 김매기 ……71

(3) 퇴비 만들기 ……90

4. 두레놀이 ……92

(1) 농악(두레풍장) ……92

(2) 두레싸움 ……104

(3) 두레놀이(두레 먹기) ……107



Ⅱ. 교환노동으로써의 품앗이와 고지 / 115

1. 품앗이 ……116

(1) 품앗이의 결성과 운영 ……118

(2) 품앗이와 노동 ……124

2. 고지 ……132

3. 소 빌리기 ……137

Ⅲ. 청양지역 공동노동의 특징 / 147

■청양의 두레 전체 제보자 명단 / 152

Ⅰ. 공동노동으로써의 두레



1. 두 레

농업은 가장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3월이면 논밭을 갈아 경작지를 고른 다음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기까지 농가의 일손은 쉴 틈이 없이 바쁘기만 하다. 힘들게 농사를 하고도 수확량이 적다면 농민들의 시름은 더해지게 된다. 농산물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온 가족이 김매기작업에 나서지만, 농사를 지을 면적이 넓을수록 노동량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마을에서는 한 가구당 한 명 이상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김매기를 하거나 모내기를 하는 공동노동관행이 전승되어 왔다.

두레의 기원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삼한시대에 마을 구성원이 농토를 공동으로 경작하고 수확 후에 공동으로 분배하는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따

라서 농사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기나 수확이 이루어진 후에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음주가무(飮酒歌舞)를 즐기는 습속이 있었다. 농사일이 마무리되면 두레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놀이판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호미씻이' 와 '풋굿'이 전승되어 왔다.

두레의 종류는 다양하다. 두레에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남자두레·여자두레로 나누기도 하며, 발생의 선후(先後)에 따라 선생두레·제자두레 또는 형두레·아우두레로 나누기도 한다. 또한 참여자의 나이에 따라 청년두레·장년두레·노인두레로 나누기도 한다.

두레에 참여하는 것은 성인만이 참여할 수가 있다. 두레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청년은 비로소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성년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첫 참가자는 두레 참여자들에게 술을 내기도 한다.

두레와 농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레가 나갈 때에는 농기를 앞세우고 장구·꽹과리·북을 치며 나간다. 김을 맬 때에는 장구 잡이 혼자만 소리를 하면서 풍물을 잡는다. 농악은 힘든 노동의 고통을 경감시키며 힘을 내게 하고, 협동심을 북돋우는 효과가 있다.

두레의 참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공동노동을 통해 모내기를 하거나 김매기를 한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자는 단위면적당 일정한 양의 곡식을 두레패에 보상으로 내놓는다. 이렇게 모여진 곡식으로 마을을 위한 공동사업의 경비로 쓰는데, 마을의 길을 넓히거나 다리를 놓는데 이러한 경비로 충당한다. 따라서 두레는 공동노동의 관행이지만, 마을의 공동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조선후기 이후 지주층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면서 두레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공동노동은 마을의 각 호가 비슷한 경적면적을 소유했을 경우 집약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부유한 농민이 많은 농토를 소유하게 되면서 그 반대급부로 일부 농민들은 농토를 잃게 되었고, 상호 협력을 중시하는 공동노동의 의미는 점차 상실해 갔다. 따라서 농토가 적거나 없는 농민은 두레에 참여하여 품값으로 보상받는 형태로 변형되어 간 것이다. 또한 농촌에도 근대화가 되면서 농기계가 보급되었고, 남의 노동력을 빌리지 않고 기계로 경작하는 경작형태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인력(人力)이

나 축력(畜力)에 의한 경작방식은 기계화로 전환되면서 두레는 농촌에서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이다.

농촌에서 풍물소리가 사라지고 경운소리가 조용한 농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변화된 농촌의 풍경을 실감하게 한다.

2. 두레패의 구성과 역할

두레는 마을 단위의 공동 노동 조직으로 각 자연 마을마다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성원의 수가 적어 두레를 조직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주변의 자연마을과 함께 조직하기도 한다. 두레는 마을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모든 경작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형태이다. 작업 후에는 작업에 따른 품삯을 계산하는데 이는 각 마을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원과 작업량, 경작지의 크기 등에 따라 품삯을 계산한다.

대부분의 마을 두레는 일제 강점기 때 사라졌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잠시 행하여졌으나 1950년 6·25 전쟁 이후 거의 소멸되었다. 전쟁 후에도 두레가 행해진 마을이 있으나 이 역시 1960년대 새마을 운동 이후로 사라졌다. 이앙기·트랙터·콤바인·제초기

등의 기계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두레를 조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농경의 기계화가 두레의 소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콤바인이나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의 사용은 공동 작업으로 해야 했던 모내기나 김매기, 추수, 타작을 몇 사람이서 할 수 있도록 해 공동노동의 필요성이 감소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약과 각종 화학 비료들이 보급되면서 제초의 효과가 커졌고, 자연히 김매기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두레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두레는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청양지역에서 두레는 정산면 마치리에서는 '둘회', 청남면 천내리에서는 '둥구레'나 '둥그레', 남양면 내직리에서는 '둥그레', 남양면 용마리에서는 '둥구레' 등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둘회'는 '두루 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마을의 기금을 마련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둥구레'나 '둥그레'는 두레와 같은 말로 두레에서 파생된 어휘의 변화로 보인다.

그런데 청남면 천내리의 경우에는 '둥그레'와 '두레'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이 마을에서는 마을 구성원이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는 두레와 둥그레가 같지만 두레는 품값을 계산해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둥그레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 단순히 서로 일을 돕는 의미로 행해지는 형태를 말한다. 또한 노동력이 제공되는 농사의 과정과 방식에서도 차이가 보이는데, 천내리에서는 김매기에 행해지는 공동노동은 두레라 하고 그 외에 모내기나 추수 때에 마을 공동으로 노동이 행해지는 것을 둥그레로 부르고 있다.

두레는 각 자연마을마다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행정적으로 구분된 하나의 리(里) 안에도 여러 개의 두레가 조직되며, 두레 앞에 자연마을의 고유명이나 행정구역상의 명칭을 붙이는 것으로 구분한다. 청남면 천내리에서는 두레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할 때에는 '시골에서의 큰 일'이라는 의미로 한자로는 '鄕事'라고 표기한다.

(1) 두레패의 조직

두레는 대개 각 자연마을마다 형성된다. 두레패의 규모는 자연마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게는 20, 30여 명, 많게는 100여 명으로 구성된다. 보통 각 자연마을마다 두레패가 조직되지만 마을의 규모가 하나의 두레패를 이루기에 그 구성원이 적은 경우 이웃 마을과 합쳐서 두레를 조직하기도 한다. 때문에 하나의 자연마을에서 독립적으로 두레를 결성했을 경우에는 자연마을의 이름을 붙이지만 몇 개의 마을이 함께 조직했을 때에는 가장 큰 마을의 이름이나 이 마을들을 아우르는 행정구역상의 명칭을 붙여서 부르게 된다.

두레는 마을을 단위로 형성되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결속을 다지며 공동체 의식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마을 전체가 서로 일손을 도우며 각 집의 농사를 짓는 일은 개인의 일인 동시에 마을 성원 모두의 일이다. 때문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두레가 결성되었을 때 마을에서 참여하지 않는 가구는 없다. 만약 불참하고 싶은 의사가 있더라도 마을 공동의 일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마을

사람들은 생각한다.

두레패에는 한 집에서 1명이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하지만 마을에 따라서 한 가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두레패의 결성과 노동력 제공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진 마을도 있지만 대체로 그 해의 상황에 따라 두레패의 수장인 사령의 지시에 따른다. 정산면 마치리에서는 두레패의 수장인 좌상공원의 결정에 따라 한 집에서 1명씩만 나오기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나오기도 한다. 반면 비봉면 강정리 갈마마을에서는 한 가구당 1명의 참여를 의무로 하고, 큰 논을 소유한 사람의 집에서는 2명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두레패를 돕기 위한 일을 추가로 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통 한 집에서 1~2명 정도가 두레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두레의 규모는 자연마을의 가구 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두레꾼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성인 남성이고, 여성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성들은 밭농사와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두레패가 결성되는 논농사는 남성이 담당하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

히 두레에 참여해 논을 매는 것은 오롯이 남성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두레꾼은 주로 20~40대의 성인 남성으로 이루어진다. 남성이라 할지라도 한 몫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일꾼으로 취급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두레패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꾼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도 중요하지만 일꾼으로써의 최소한의 힘과 노동력을 지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두레패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통과의례를 거쳐야만 한다. 비봉면 강정리의 갈마마을에서는 두레에 들어올 때 어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일꾼으로 들어오려는 아이의 성기를 확인하거나 씨름을 하기도 한다. 이는 그 아이가 장정으로써 두레패 내에서 제대로 한 몫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랐는지, 그리고 힘든 농사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두레패에 들어가기 위한 이러한 풍속을 통해서도 두레의 구성원이 성인 남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정한 통과의례를 거쳐 두레패의 일꾼이 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두레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사람이 두레꾼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두레꾼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청남면 천내리에서는 처음 두레에 들어오는 사람이 '꽁뱅이를 낸다'고 해서 술을 대접하는데, 이 술을 '꽁뱅이술'이라고 한다. '꽁뱅이'는 마지막, 꼴지를 뜻하는 말로 두레패에서 막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두레꾼들에게 꽁뱅이술을 내는 것은 두레에 들어올 때 예(禮)를 차리는 것으로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뜻을 보이는 행위이다.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두레가 모두 끝나고 한바탕 잔치를 벌이는 두레 먹는 날이나 두레꾼들이 모두 모인 특별한 자리에서 이듬 해 두레꾼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꽁뱅이술을 내고 이 술을 돌려 마심으로써 두레의 일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꽁뱅이술을 내는 것은 이제 막 두레패의 막내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듬해부터 두레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레가 남성을 중심으로 조직되다 보니 여성들의 참여는 불가능했고, 뿐만 아니라 아직 어려서 일을

할 수 없는 남자아이나 나이가 들어 들일을 할 수 없는 노인 역시 일꾼에서 제외되었다. 간혹 집안에 일을 할 만한 장정이 없이 과부나 어린아이, 노인만 있어 두레에 참여할 노동력이 없는 집의 경우에는 일꾼을 내보내지 못하고 대신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이 대신 참여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두레 일꾼으로 한 몫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레 때 나와서 심부름을 하거나 음식장만을 돕는 것으로 대신한다. 물론 두레패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일꾼이 부족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두레는 마을 공동체를 위해 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돕는 것이다. 그래서 집안의 사정으로 일꾼을 내보내지 못했더라도 두레패는 그 집의 논도 함께 일을 해주고, 두레에 일꾼을 낸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런데 마을에 따라 집안에 장정이 없을 경우 여성이 두레 일꾼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청남면 내직리에서는 남편이 없고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여성이나 어린 아이가 대신 두레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일꾼으로써 한 몫을 차지할 수 없어 성인 남성들과 같은 일을 하지는 않지만 두레에

참여해 두레꾼의 뒤를 따라 가면서 넘어진 모를 세우는 등의 비교적 간단한 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두레패에서는 이렇게 와서 돕는 것을 일꾼 한 명 몫으로 인정을 해 준다. 이 역시도 이웃의 사정을 이해하고 부족한 인력이나마 돕는 것에 의의를 두기 때문이다.

남양면 용마리에서도 내직리와 같이 아이들이 대신 일꾼으로 두레에 나와 심부름을 하기도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품값을 물리기 때문이다. 대신 어린 아이라도 두레에 나가 심부름을 하면 실제로는 부족하지만 한 사람 몫으로 참여했다고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 용마리의 경우 장정 대신 여성이 두레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남자 아이만 일꾼 대신 참여할 수 있다. 어른 대신 두레패에 참여한 아이들은 담뱃불로 사용하기 위한 화로나 일꾼들이 벗어놓은 신발 등을 이동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일 등 일꾼들의 심부름을 주로 맡아서 하였다. 이처럼 실제로 나이가 어려 아직 한 사람 몫의 일을 하지 못하지만 집안의 어려운 상황으로 아이가 두레에 참여하게 될 경우 부족한 일손이지만 일꾼으로 함께 넣어달라는 의미에서 두레꾼들

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한 턱 내는데, 이를 용마리에서는 '꽁배'라 불렀다.

(2) 두레회의

두레패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두레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한다. 보통 '두레회의'라고 하지만 청남면 내직리에서는 '동회(洞會)', 남양면 용마리에서는 '두레공론'이라 부른다. 두레는 주로 김매기 때에 실시하는 데, 음력 5월 초순모를 심고 5월 말 즈음 회의를 소집하여 그 해 두레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비봉면 강정리 갈마마을의 경우 연초(年初)에 두레회의를 연다.[1)]

두레회의는 동네 이장이 소집한다. 두레회의는 크게 두레가 열리기 전에 하는 두레를 준비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와 두레가 끝나고 두레를 마무리 하면서

---

1) 비봉면 강정리 갈마마을의 경우 2월 초하루 동회를 열 때 두레회의도 함께 해서 두레를 결정한다. 이 마을의 경우 모내기 때에도 두레를 하기 때문에 미리 두레회의를 하는 것이고, 두레결성이 결정된 후에는 못자리를 만든 후부터 본격적인 두레회의를 진행한다.

여는 회의가 있다.

두레를 시작하기 전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그 해의 두레패 결성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해 두레를 결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두레패의 수장과 임원들을 선출한다. 이후에는 두레패의 수장의 주관 하에 회의가 열리고 진행되며, 김매기의 순서와 품값을 등을 두레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결정한다. 본격적인 두레가 시작되면 두레가 열리는 동안 늘 모든 일꾼이 모여 있기 때문에 따로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대신 매일 일을 나가기 전에 일꾼들이 모두 모이면 그날 하루의 일과를 알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그날의 일과를 마무리 하며 다음날에 대한 사항들을 간략히 알리는 것으로 끝낸다.

그 해의 두레가 끝나고 나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품값을 계산하고 논 주인으로부터 논 값을 받아 두레로 모인 기금을 결산한다.

① 두레를 하기 전에 여는 회의

• 두레패의 결성여부 결정

두레는 각 마을마다 존재하지만 매년 결성되는 것

은 아니다. 물론 마을의 규모가 크고 들이 넓어 매년 두레를 여는 것이 가능한 마을은 무관하지만 마을 구성원이 많지 않고 들이 넓지 않은 곳에서는 두레를 할 수 있는 상황일 때만 결성한다. 두레를 결성하는 목적은 농사일의 효율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두레를 통해 마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마을의 공동기금이 부족한 시기에는 반드시 두레를 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마을의 상황에 따라 두레를 결성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두레를 결성하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논 주인이 내는 '논 값'과 노동력에 대한 '품값'으로 모인 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마을 기금이 부족한 시기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두레를 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필요에 의한 것이고 보통 김매기의 작업이 공동노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두레 결성을 결정한다. 마을에서도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일꾼을 사서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두레를 하게 되면 일꾼을 사야 하는 품값을 절약할 수 있어 두레 결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두레를 할 경우 일꾼으로 일할 때보다 적은 품삯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꾼을 사서 써야 하는 입장에서는 두레가 훨씬 이익인 것이다. 하지만 논을 적게 가지고 있거나 없는 사람들은 품앗이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굳이 두레를 열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야 하는 사람들은 두레를 결성하게 되면 품팔이로 일을 나갔을 때보다 품값을 적게 받거나 품값을 마을 기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두레를 반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논 값을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품값을 계산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두레의 결성에 대한 마을 성원의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두레회의와 같이 마을 성원이 모두 모여 두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두레의 결성 여부는 마을 기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김매기 작업의 공동노동 필요성과 효율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요인이 되며, 특히 마을 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두레패의 구성과 노동방식의 결정

마을 사람들 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은 후 두레를 하기로 결정이 나면 가장 먼저 두레패의 수장인 '좌상(座上)'을 뽑는다. 좌상은 마을에서 덕망이 있고 두레패를 이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는데, 좌상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두레패의 구성과 역할'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마을 내에서 논의를 통해 적당한 사람으로 좌상을 뽑고 나면 '논 값'과 '품값'을 정한다. 여기에서 '논 값'이란 두레를 결성해 김매기를 해주는 대신에 논 주인이 내야하는 비용이고, '품값'은 두레에서 일꾼으로 참여해 일을 하는 한 사람마다의 노동력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논 값은 대개 논의 크기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두레 회의 때 그 해의 기본적인 논 값이 결정된다. 대치리에서는 미리 논 값을 정하지 않고 두레를 하면서 매일 일이 끝난 뒤 논 값을 정한다. 이 때는 논을 상중하로 나누어 논 값을 받는데, 풀이 많아서 노동량이 많이 드는 논은 논 값을 더 받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논은 논을 덜 받는다. 품값의 경우 장정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되 정도인데, 두

레 때의 품값은 그보다 적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레회의에서는 김매기를 할 날짜와 논을 매 나가는 순서도 결정한다. 넓은 들의 논을 가진 마을에서는 각 논에 모내기를 한 시기와 물이 있는 정도, 잡초가 생긴 정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순서를 정한다. 하지만 골짜기를 따라 논이 길게 배치되어 있는 마을의 경우 각 논의 상태를 점검하기는 하지만 보통 논을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매 나갈 것인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매 나갈 것인지만 결정해 순서대로 매 나간다. 특히 산이 많은 청양지역은 넓은 들을 끼고 있는 마을보다는 계곡을 따라 논이 일자로 늘어선 경우가 많아 주로 후자의 방법으로 논매는 순서를 정하는 마을이 많다. 하지만 김매기는 기상조건에 따라 상황이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레패가 실제로 결성되어 일을 시작할 때 논매는 순서는 다시 한 번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비봉면 갈마 마을 두레는 아래의 큰 들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데, 아래는 물이 부족하여 쉬이 가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물을 대고 모내기를 시작

하기 위함이다. 대치면 장곡리 두레 역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중간에 늦게 심은 모가 있는 경우 이 논은 건너뛰었다가 마지막에 작업을 한다. 청남면 천내리에서는 모를 비슷한 시기에 심었다고 할지라도 풀이 더 많이 나서 김매기가 시급한 논을 먼저 작업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레의 대표자인 좌상이 최종 결정한다.

두레회의는 두레가 시작되기 전 한 두 차례 정도 열린다. 이러한 두레 회의는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매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서너 번 계속 되는데, 두레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② 두레가 끝나고 열리는 회의

• 품값의 계산과 두레기금 결산

모든 두레 작업이 끝나면 두레회의를 열어 논 값을 걷고 품값을 계산한다. 두레가 끝난 후 열리는 두레회의는 주로 '두레 먹는 날'에 많이 열린다. 청양에서는 칠월 칠석에 주로 열리는 두레 먹는 날은 두레가 끝나고 한바탕 잔치를 하는 날로 풍물을 치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농악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두레 먹는 날 아침이면 두레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두레기금을 결산하기 위해 두레회의를 연다. 두레기금은 서사가 관리하며, 두레 일을 마치면 공원이 상태를 보고 직접 책정해 둔 논 값을 거둔다. 잡초의 많고 적음, 논의 무른 정도에 따라 논 값은 차등으로 지정된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부유한 집안에서는 논 값을 두 배로 내거나 두레패에 찬조금을 내기도 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행을 베풀기도 한다. 이를 '턱 내기'라고 한다. 장곡리의 경우 열 마지기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논 값을 받는데, 이는 논을 적게 가지고 있는 영세민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논 주인에게 논 값을 걷고 나면 이 돈에서 품값을 계산한다. 품값은 따로 걷는 것이 아니라 논 값으로 거두어들인 돈에서 각자 두레에 참여한 날 만큼 계산해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는 논 값의 계산뿐만 아니라 일꾼 중에 빠진 사람이 없는지 매일 확인을 해서 마치 학교의 출석부처럼 기록을 해 둔다.

그리고 두레회의 때 두레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빠진 날짜만큼의 품값을 받는다. 청남면 천내리에서는 이렇게 내는 논을 '불참전'이라고 한다. 하지만 혼례나 상례, 제사 등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경우에는 두레에 빠지더라도 품값을 받지 않고 용인해 준다.

정산면 마치리에서는 일을 하러 나오지 못해 그 날의 품값을 내 놓을 경우 그 날 두레패가 맨 논의 양만큼 품값을 내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 두레패가 10마지기를 일했고, 한 마지기의 값이 만원이라면 두레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10만 원을 내 놓아야 하는 것이다.

각자의 품값을 계산해 돌려주고 남은 돈은 마을의 기금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마을 기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품값을 적게 책정하기도 하고, 아예 마을 성원이 품값을 돌려받지 않고 마을기금으로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두레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함께 공동 작업을 하여 품을 사야하는 비용을 절약하고, 대신 각 집에서 품을 사는 비용을 마을기금으로 모으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품팔이로 생계를 잇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품값을

더 쳐서 돌려주거나 마을 성원이 품값을 돌려받지 않는 때에도 품값을 돌려준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두레에 참여해준 감사의 의미와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배려해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풍속이다. 이렇게 두레를 통해 모인 돈은 두레 먹는 날 잔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마을제의를 지낼 때, 상여나 가마, 풍물 악기의 구입 등과 같이 마을의 공동재산을 구입할 때 사용한다. 또한 정산면 마치리에서는 마을에서 산제를 지내기 때문에 산제의 제물 비용으로 기금을 사용한다.

(3) 두레패의 구성과 역할

두레는 마을 단위의 공동 노동으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사일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다. 마을마다 조직의 구성과 역할분담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두레패를 이끄는 좌상과 실무를 담당하는 공원, 두레의 농사일을 직접 하는 두레 일꾼, 공원을 도우며 일꾼들의 심부름을 하는 총각대방,

두레기금을 관리하고 논 값과 품값 등의 비용을 계산하는 서사, 악기를 치는 풍물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좌상(座上)

좌상(座上)은 두레패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두레의 총책임자로서 두레를 총괄·지휘한다. 좌상이란 말은 앉은 자리에서 가장 윗사람이란 의미로 모임의 수장을 나타낸다. 대치면 마치리에서는 '좌상공원', '공좌상'이라 부르고, 정산면 천장리에서는 '공원좌상', 정산면 와촌리에서는 '두레장', 대치면 장곡리에서는 '사령'이라고 부른다. 마을마다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두레패를 이끄는 사람이란 의미와 그 역할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좌상은 두레회의에서 선출하는데 마을에서 두레에 참여하는 일꾼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 결정한다. 특히 농사일에 대하여 잘 알고 일을 지시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덕망 있어 지시를 내리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정한다. 두레가 성행하던 당시에는 결혼도 일찍 하고 수명도 지금보다 짧았기 때문에 40세 정도가 되면 마

을에서 어른 노릇을 할 연령이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좌상은 40대에서 많아야 50대 정도의 사람들이 주로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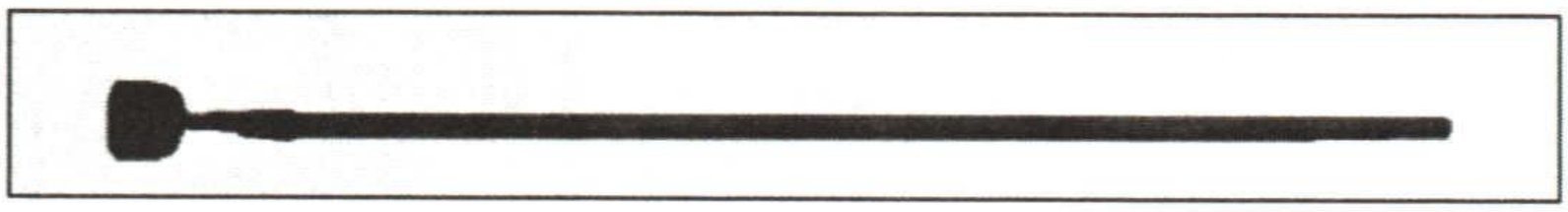
매년 두레를 새로 열 때마다 좌상을 선출하는데, 대개 연임하는 경우가 많다. 좌상을 선출하는 방식은 성원들의 자발적 추천에 의한 것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 좌상이 선출되면, 두레 일을 나가기 전 그 해 두레꾼의 모집방식, 일을 해 나가는 순서 등을 결정하기 위해 좌상의 주체로 두레회의가 수차례 열린다. 그리고 좌상의 지시에 따라 두레 일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한다. 본격적으로 두레 일을 나가기 시작하면 좌상은 두레패의 맨 앞에 앞장을 서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두레로 일을 해 나가는 순서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오늘은 오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하고 어느 논에서 밥을 먹고 어느 논까지 일을 마칠 것인가 하는 하루의 일정을 결정하고 두레꾼이 모였을 때 이를 알린다.

좌상은 논에 함께 나가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농사일은 하지 않는다. 나이가 많은 탓도 있겠지만 논 밖에서 농사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총괄하며 지시를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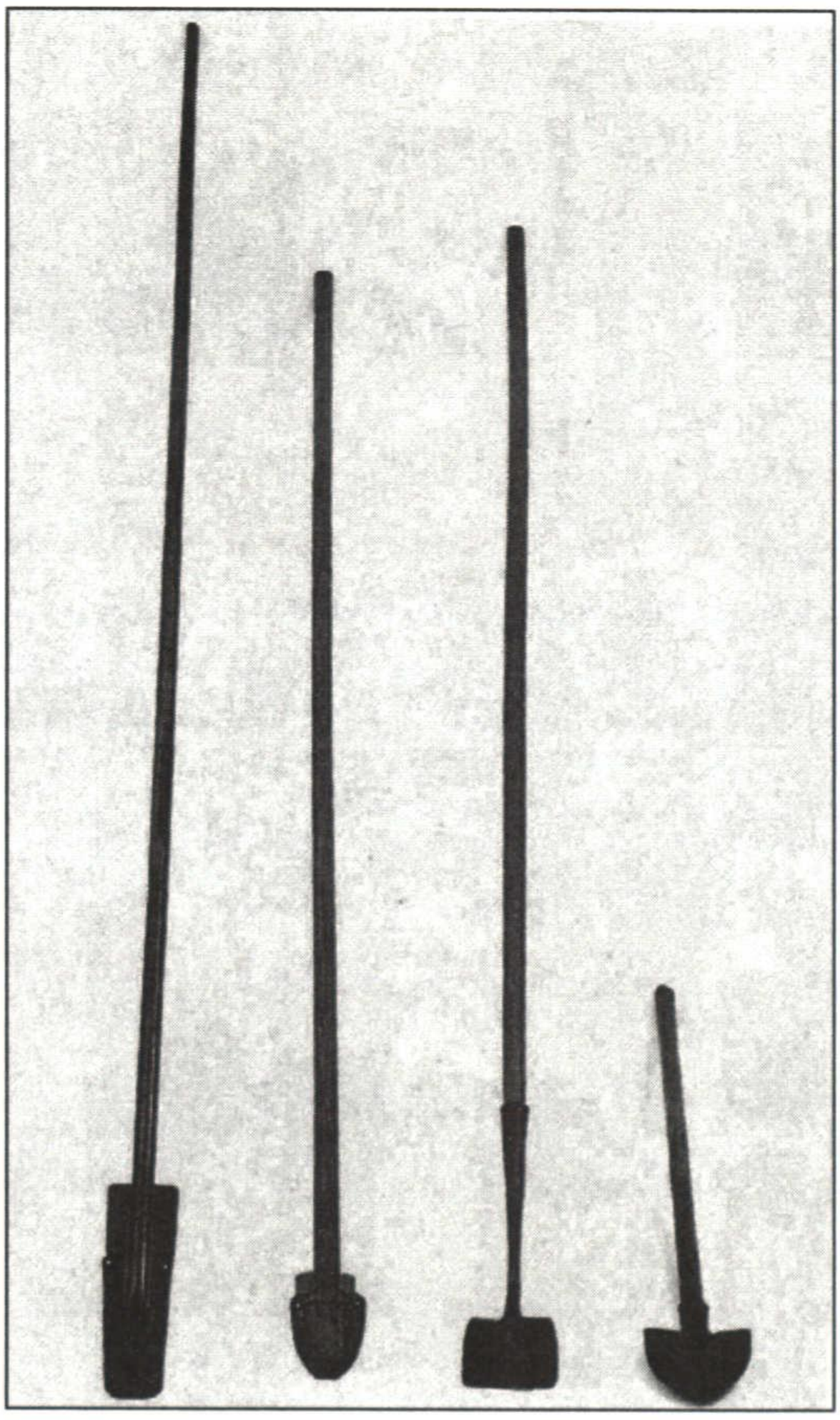
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기를 세워둔 곳 근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일하는 과정을 지켜본다. 두레 일꾼들이 일을 잘하는지 안하는지 감시도 하고 현장지도와 중간 점검, 일꾼 통솔 등 두레의 전반적인 일에 모두 관여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끈다. 한 논의 일이 다 끝나면 좌상은 일어나 방향을 지시하고, 이를 길잡이로 하여 일꾼들이 다음 논으로 이동한다.

정산면 천장리에서는 좌상이 좌상임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일을 지시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살포'를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살포는 논에 물길을 막거나 열어주는 도구이다. 살포를 사용하면 농부가 논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물길을 조절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작업을 하기 위해 자루가 매우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구를 좌상이 지니고 두레패를 지위했다는 것은 좌상이 농사의 물 관리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비봉면 강정리의 경우 살포가 아닌 종가래를 들고 다녔다고 한다. 흙을 떠내는 도구인 가래는 양 쪽에 줄을 달아 몇몇 사람이 줄을 잡고 한 사람은 가래를 잡

아 함께 일하는 도구이다.



〈사진 1〉 살포(비봉면 강정리 홍재성 소장)



〈사진 2〉 다양한 형태의 살포

이와 달리 종가래는 그 외형은 비슷하나 줄이 달려 있지 않고 한 사람이 혼자 사용할 수 있도록 작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살포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정산면 천장리의 좌상이 들고 다니는 살포나 비봉면 강정리의 좌상이 가지고 있는 종가래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좌상은 두레패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인물로서 절대적인 권한과 위엄을 지니며, 좌상의 지시가 없이는 두레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두레패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② 공원

공원은 좌상을 보조하는 자리로 두레가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좌상의 지시를 일꾼들에게 전달하며,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좌상과 함께 첫 두레회의 때 선정되며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의욕과 책임감이 있으면서도 두레 일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특히 논값과 품값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정한 성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

다. 두레패에서 좌상이 지시를 내리는 위치라면 공원은 실무적으로 일일이 직접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해 좌상에게 알리고 이에 따른 좌상의 지시를 일꾼들에게 알리거나 직접 행한다. 즉 두레의 실무책임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두레가 나가기 전에는 공원이 각 논마다 직접 다니면서 논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좌상에게 알려 논을 매야하는 순서와 논 값, 품값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원이 직접 논을 조금씩 매어 보아서 풀이 많은지 적은지, 논이 딱딱한지 무른지 등을 판단해 그 결과를 두레회의에서 보고하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좌상이 논을 매는 순서와 품값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두레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원은 일꾼들과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주변을 살피기도 하면서 두레의 모든 상황을 파악한다. 특히 일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즉각 좌상에게 알린다. 또한 일을 감독하던 좌상이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리면 이를 직접 일꾼들에게 전달하는 등 두레패의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아우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때문에 공원을 잘못 선정하면 좌상과 일꾼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논 값이나 품값을 정하는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두레패의 우두머리인 좌상의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원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원을 했던 사람이 후에 좌상을 하며 두레패를 이끄는 경우가 많다.

비봉면 강정리의 경우 공원이 없고, 일꾼이라고만 하는데 공원은 상인(商人) 조직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일꾼

일꾼은 두레패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로 두레패에서 모내기나 김매기 등의 농사일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두레패 자체가 일꾼들로 구성된 것이기에 별도의 선정과정이란 것이 없고, 마을마다 정해진 규칙이나 좌상의 지시에 따라 각 가구별로 한 사람이나 혹연 여러 사람이 일꾼으로 참여한다. 일꾼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15세 이후의 남자들이다. 또한 농

사일을 하는데 있어 한 명 몫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일꾼으로 받아줄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일꾼으로써 노동력을 지녔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으며, 이를 통과해야만 두레의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비봉면 강정리 갈마마을에서는 일꾼으로 받아들일 아이들의 성기를 확인하거나 씨름을 해서 아이의 힘을 판단해 보기도 했다.

처음 일꾼으로 두레패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어린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데, 꼴찌란 뜻으로 '꽁배' 혹은 '꽁뱅이'라 불린다. 일꾼으로 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숙련된 일꾼들만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일꾼이 된 사람들이 일을 배워야 하는데, 특정한 교육기간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일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내기 일꾼들은 농사일을 주변에서 도우며 눈으로 익혀간다. 그래서 처음 일꾼이 되면 화로나 담뱃대를 들고 다니면서 잔심부름을 맡아서 하거나 일꾼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넘어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 등 간단한 일을 돕는다. 이러한 일은 마을에 따

라서 일꾼으로 일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대신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한해나 두해 정도 일을 익히고 나면 본격적으로 두레패의 일꾼으로 농사일을 함께하게 된다.

두레가 나갈 때는 두레 일을 하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마을 아이들도 따라다니는데, 구경거리가 없을 당시에 풍물도 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두레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레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함으로서 두레를 자연스럽게 학습해 나갈 수도 있었다.

④ 총각대방

두레패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공원이 따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공원이 혼자서 모든 일꾼들을 돌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일꾼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해 공원을 돕고 일꾼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이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긴다. 이를 맡는 사람을 청양에서는 '총각대방'이라 하는데, 정산면 남천리에서는 '총각마구리'라 부르기도 한다.

본래 총각대방은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혼인을 하지 못하고 총각으로 남아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예전에는 15~16세만 되어도 결혼을 했는데, 20세가 넘어서도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있었다. 이런 경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어린 결혼한 남자들은 어른으로 모셔야만 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늙은 총각대방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총각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대장이라는 의미이다. 이 말을 두레패에서도 사용하는데, 두레꾼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총각 일꾼들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총각대방은 어른 일꾼들과 나이가 비슷하지만 결혼을 못해 어른대접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어른 일꾼들이 시키는 일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총각들 중에서는 대장이나 마찬가지로 연장자이기 때문에 총각 일꾼들을 잘 통솔할 수 있다. 즉 총각대방은 젊고 어린 일꾼들을 통솔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돕거나 잔심부름 등을 도맡는다. 또한 아무리 어른 대접을 하지 않더라도 나이가 많은 일꾼이기 때문에 다른 일꾼들의 일을 독려할 수도 있고 또 감시도 할 수 있어 공

원의 실무를 분담해 주는 존재인 것이다. 특히 일이 더디게 진행될 때 좌상과 공원의 지시를 받아 일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독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초리를 들고 일을 게을리 하는 이들을 혼내기도 한다.

⑤ 서사

두레패의 사무를 맡아 보는 사람을 서사, 서기라고 한다. 서사는 두레의 품값과 논 값을 계산하고 장부에 기록하며, 그 외에 두레패와 관련한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한다. 두레회의의 회의 내용과 두레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그 해의 좌상과 공원 등의 임원 명단, 좌상의 지시사항 등 두레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날그날 일을 나온 일꾼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다. 일꾼들의 출석부와 같은 이 기록은 이를 기준으로 두레가 끝났을 때 품값을 계산하고, 또한 두레에 빠진 일꾼에 대해서는 품값을 돌려받는 등 두레의 기금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서사의 일인 것이다.

두레패의 서사는 따로 뽑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마을 기금을 관리하는 마을의 서사가 두레 때에도 맡

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니면 마을 이장이나 동장이 이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두레패의 품값과 논 값을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을에서 서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글을 기록할 수 있고 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⑥ 풍물꾼

두레가 나갈 때는 맨 앞에 풍물을 치는 사람들이 농악을 연주하며 나가는데, 이들을 '악기 잽이'·'풍물 잽이'·'풍물꾼'·'풍물패' 등으로 불린다. 풍물꾼의 악기에는 꽹과리, 북, 장구, 징, 소고, 태평소 등이 있는데 마을의 상황에 따라 소고나 태평소는 제외되기도 한다. 풍물꾼은 평소 악기를 잘 치고 신명이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데, 악기는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 정해진 사람이 늘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특별히 풍물패를 정하는 절차가 없이 자연스럽게 풍물꾼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첫 두레가 나갈 때 뒤에 탈을 쓰거나 분장을 하고 뒤따르는 잡색은 두레회의 때 따로 정하기도 한다.

풍물꾼을 앞세우고 두레를 나가게 되면 악기를 치는 사람들은 논일을 하지 않고 계속 악기를 치는데 소고를 들었던 사람들은 논일에 참여한다. 풍물은 노동의 힘겨움을 덜어주고 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의 박자와 속도를 맞추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천천히 일할 때는 느린 가락으로 연주하고 빠르게 일을 진행할 때는 빠른 가락으로 연주를 한다. 논일을 하는 동안에는 악기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하기도 한다. 주로 태평소를 부는 사람이 선소리를 하고 일꾼들이 뒷소리를 하는데, 남양면 용마리에서는 노래를 선창으로 메기는 사람을 '사령'이라고 부른다. 소리를 할 때는 장구나 북만 연주를 하고 다른 악기 잡이들은 잠시 쉰다. 풍물을 치는 사람은 논일을 면제받기는 하지만 풍물을 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논에서 일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기며, 품값도 동일하게 계산한다.

악기 치는 사람 외에도 마을에 따라 농기를 드는 사람을 따로 정하기도 한다. 농기는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두레 일을 나갈 때마다 농기를 가지고 나가 논둑에 세워두는 마을도 있고 첫 두레와 마지막 두레

때만 농기를 가지고 나가는 마을도 있다. 이 때 마을 농기가 크지 않은 마을에서는 농기를 드는 일이 어렵지 않아 일꾼들 중 한 사람이 기를 들고 나간다. 하지만 일부 마을의 농기는 수 미터의 높이에 장정 한 사람이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크게 만든다. 그래서 힘이 좋은 장정 한 사람이 깃대를 잡고 농기 꼭대기에 줄을 두, 세 가닥 연결 해 다른 세 사람이 줄을 잡아서 농기를 지탱한다. 이러한 경우 농기를 드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따로 한 사람을 정해 농기를 들게 하고 대신 논일은 제외시키기도 한다.

3. 공동노동으로써의 두레

두레회의에서 결정된 첫 두레 나가는 날 아침이 되면 징이 울리고 아침밥을 든든히 챙겨먹은 마을의 일꾼들이 정자나무나 마을 공터로 모여든다. 두레패가 나갈 때에는 두레패의 수장인 좌상이 길잡이 역할을 하며 맨 앞에서 두레패를 이끌며 나가고 그 뒤로 풍물패와 일꾼들이 따라간다. 논에 도착하면 일꾼들은 모내기나 김매기 등의 작업을 하고 좌상이 이를 감시하며, 풍물패들은 악기를 치고 소리를 하며 일의 흥을 돋운다. 한 논의 작업이 끝나면 좌상은 다음 논으로 두레패를 이끌고 이동하며 순서대로 작업을 해나간다.

두레는 마을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노동이기에 농사일 중에서도 특히 일손이 많이 필요한 논농사와 김매기 때에 주로 행해진다. 모심기부터 김매기까

지 모두 두레로 하였다는 비봉면 갈마마을 두레 외에 퇴비를 만들 때 하는 두레를 경우가 간혹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청양지역에서 두레는 김매기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1) 모내기

모내기는 못자리에 미리 벼를 심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물을 댄 논으로 모를 옮겨 심는 과정을 말한다. 본래 벼농사는 볍씨를 직접 땅에 뿌리는 직파법이 일반적이었고 역사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된 것은 고려시대 말이나 조선시대 초로 여겨진다. 그런데 조선 초기의 농서인 『농사직설』에 보면 '모내기는 가뭄이 심하면 실패하기 쉬우며 농가로서는 위험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모내기가 조선 초기에 행해지기는 하였으나 권장하지 않은 방법이었고,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모내기가 일반화된 것은 조선후기에 와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모내기 작업의 장점은 볍씨를 뿌려 어린 모로 성



〈사진 3〉 모판을 관리하는 모습

장할 때까지 못자리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또한 못자리에서 자라는 동안은 본래의 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토지를 이모작으로 농사를 짓기에 모내기가 적절한 방법인 것이다. 또한 논에 물을 대는 기간이 단축되어 농업용수를 절약할 수 있고, 일정 간격으로 모를 옮겨심기 때문에 심은 후에도 관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은 곧 벼의 수확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모내기를 하는 시기인 봄은 가뭄이 심한 때로 이 때 논에 물을 충분히

대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까지 생긴다. 그래서 수리시설이 확충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모내기가 보편화된 것이다.



〈사진 4〉 모내기를 하는 모습

모내기는 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며,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내기철이 농사의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다. 모내기는 주로 5월 말에서 6월 경 이루어진다. 모내기를 위해서는 볍씨를 못자리에 뿌리는 과정이 선행된다. 못자리내기는 곡우(穀雨) 무렵에 행해지는데, 논 안에서 물대기가 편리

한 장소를 택해 그 부분만 물을 대어 쟁기질과 써레질을 한 후 물을 빼서 말렸다가 다시 물을 대어 볍씨를 친다. 이렇게 못자리를 만드는 과정은 논일을 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못자리를 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모가 자라게 되고 이 때 자란 모를 떠서 큰 논에 옮겨 심는 것이다.

모내기에는 산식(散植)과 줄모심기[2]가 있다. 산식은 포기 사이와 줄 사이가 고르지 않게 모를 심는 방식으로 논의 형태와 모양 등에 따라 모심기의 방법과 간격에 차이가 나는 방식이다. 하지만 줄모심기는 논에 줄을 대어 일정한 간격으로 모를 심어나가는 방식으로 줄 사이와 모 포기 사이의 거리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줄모를 심는 것은 일제 강점기 때 권장했던 방식으로 이전에는 모두 산식으로 모내기를 했다. 산식은 모내기를 하는 간격이 달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치부되었지만 실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논에서는 논의 형태와 모양에 따라 모내기 방식을 결정했기 때문

---

2) 줄모심기는 농학에서는 정조식(正條植)이라고 하는데, 본 글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줄모심기로 표기한다.

에 산식이 적합한 모내기 방식이었다. 그래서 줄모심기를 권장한 초기에는 이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논에서 줄모를 심기란 어려운 일이었고 훨씬 비효율적이었다. 또한 산식으로 모내기를 할 때는 모를 심는 속도를 서로 속도를 맞출 필요도 없이 논의 모양새에 따라 맞추어 심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줄모를 심으면서 함께 모를 심는 사람들은 서로 박자를 맞추어 모를 심어야 했기 때문에 줄을 밟기가 일쑤였다. 뿐만 아니라 제각각의 모양을 지닌 논에 줄을 대는 방식도 달라 어떤 논은 모가 남기도 하고 어떤 논은 모가 모자라 논이 비는 경우도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 농민들은 일본인이 하는 방식이라는 반일감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모내기를 하는데 있어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줄모심기를 반대했고, 모내기를 할 때 줄을 끊고 본래의 방식인 산식으로 모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모내기철이면 군이나 면에서 관리인을 보내 줄모를 심고 있는지 감시를 했고 마을 사람과 감시인 사이에 싸움이 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논의 경지정리작업이 시작되고 줄모심기의 방법에 익숙해진 젊은 농

민들이 농사일을 맡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산식은 사라지고 줄모심기의 방식이 정착하게 되었다.

모내기는 모를 심는 방법에 따라 막모, 자모, 호미모, 말뚝모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막모는 일정한 틀 없이 마음대로 심는 것이고, 자(尺)로 재어 심는 것이 자모이며 줄모는 논에 줄을 박아두고 이에 맞추어 심는 것이다. 호미모는 호미 끝으로 땅을 파서 심는 방법이며 말뚝모는 땅이 굳어 호미가 들어가지 않을 때 말뚝을 박아 구멍을 낸 뒤 모를 심는 방법이다.

모내기는 농사작업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그래서 기계화 이전에는 모내기를 할 때 온 가족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품앗이를 하거나 두레를 결성해 모내기를 하게 되는데, 특히 들이 넓은 지방일수록 두레 모내기가 성행한다. 모내기 때 두레를 여는 것은 '모내기두레' 혹은 '두레모내기'라고 한다.

모를 심을 때는 일의 박자를 맞추고 힘든 노동에 활력을 주기 위해 노래를 부르며 하기도 했는데, 청양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요들이 조사되었다.

다음 민요는 2004년도에 조사해 발간한 『청양의 민요』에서 발췌하였다.

모심는 소리 (1) [3]

허~~허~~아~~에~~~~

에이~어~야~아~~

아~으로송　허~~이~~어~~

허~~~~~~~아~~~

에~~~~~어~~~아~~

으라상~이~~어~~

어~~라 서산의~~이~

해넘기고~~오~~가을켠 동녘에 달이솟네~~에~~이~~

오하~오~허~ 상사디여

오로얼 오로 여기서루~

(여럿이)오하오하 상사디여 오하오하~

---

3) 유진영(남, 80세,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논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장구, 꽹과리, 북, 징 등 사물악기를 다 치고 소리하며 모심을 때는 소리와 함께 장구만 친다. 모심는 기간은 총40일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 소리는 계속 이루어진다. 3단으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며 그 소리를 상사소리라 한다. 메기는 사람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소리를 앞에서 메기는데 일을 하지 않고 소리만 한다.

상사소리 날들라
오하오하 상사디여
서삭서삭 쒸워둘레세
오하오하 상사디여~
상사소리 나가들랑
오하오하 상사디여
소사소사 힘을내세
오하오하 상사디여

모심는 소리 (2) [4]

허~허~아~아~에~헤이~에~헤~아~상사디요~
어럴럴러 상사디여
상사소리가 나거들랑 어삭석삭 심어를 보세
어럴럴러 상사디여
상사소리가 왠소리냐
어럴럴러 상사디여

---

4) 윤정근 (남, 74세,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2구) 이 지역에서는 못방구 치는 소리, 못방구 친다고 말한다. 선소리꾼이 장구를 치며 소리를 메기는데 소리꾼이 소리를 먹이면 일꾼들이 후렴을 받는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되다가 점차 모심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리도 점차 빠르게 진행되고 메기는소리의 내용도 변화한다.

다심었네 다심었네 반달만치 남었구나
어럴럴러 상사디여
니가 무슨 반달이냐
어럴럴러 상사디여
초생달이 반달이냐
어럴럴러 상사디여
높이 떴던 해는 지고 저 달이 솟네
어럴럴러 상사디여
상사소리가 왠소리냐
어럴럴러 상사디여

모심는 소리 (3)

뒷동산 살구꽃은
가지나가지 보내신
얼널널 상사디여
아침들 푸른벌판
보기만 하여도
배가 불러
얼널널 상사뒤여

모심는 소리 4

이 농사를 얼른지어
나라에 상납하고
부모처자 먹고 지고
세세얼널널 상사뒤여

모심는 소리 (5)

아 – 아 바람이 분다
아 – 영평바다
갈바람분다
에이이이-야 에이이이 – 야

모심는 소리 (6)

저달은 하나라도
팔도를 보건만은
요내눈은 둘이라도
님하나 밖에 못 보네.

모심는 소리 (7)

파랭이꼭지 상화를 꽂고,
마을애기 춤이나 추어보세.
얼널널 상사두야.

모심는 소리 (8)

겨울날 차가운데,
편히앉아 휴식하니
인간의 지락이라.
어혀여혀 상사뒤여.

모심는 소리 (9)

남방초야 네가왔다.
우리 님이 보내드라.
우리 님이 보낼 적에
아모말씀 안하든가.

모심는 소리 10

남춘선 달밝은데,
순임금의 놀음이요.
오유월이 당도하니,
우리농부 시절이라.

모심는 소리 (11)

먼데사람 듣기 좋은
가까운데 보기 좋은
북 장구 장단에
심어나 보세.

모심는 소리 (12)

모시야 적삼 시적삼에
분통같은 저젖봐라.
많이 보면 병난다네
살금살금 보고가자.

모심는 소리 (13)

만민지 항산이요,
천하지 대본이라.
교민화식 하온 후에
농사밖에 또 있을까.

모심는 소리 (14)

불빛을 등에지고,
진흙물에 들어서서
이 농사를 이리지어
누구하고 먹자하노.

모심는 소리 (15)

사람마다 벼슬하면,
농부될사람 어데있나.
의사마다 병 고치면
북망산천 왜생겼나.

모심는 소리 (16)

서울이라 언을띄워
거귀옥당 연걸였네.
아래웃방 시녀들아
연줄긋는 구경가네

모심는 소리 (17) [5]

여보아라 농부들 말들어보게.
나라국곡을 하려니와
부모봉양 늦어간다.
에헤에헤 어허야.
따에루 상사데야.

여보아라 농부들 말들어보게.
이논빼이 얼른매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에헤에헤 어허야.
따여루 상사데야.

---

5) 홍천석(남, 80세, 청양군 화성면 산동리)

모심는 소리 (18)

우리 오라비 양모배자.
어느누가 누볐는고,
서울기생 졸음나고
평양기생이 누볐다네.

모심는 소리 (19)

유자와 탱주는 의가 좋아
한꼭지에 둘이여네.
처자총각은 의가좋아
한벼게에 잠이드네.

모심는 소리 (20) 6)

만민지 항산이요, 천하지 대본이라
교량대식하온 후에 농사밖에 또 있을까.
먼데사람 듣기좋게

---

6) 우봉식(남, 71세, 청양군 목면 화양리), 우제두(남, 75세, 청양군 목면 화양리), 윤홍수(남, 68세, 청양군 목면 화양리), 우국명(남, 65세, 청양군 목면 화양리)

가차운데 사람 보기좋게
북 장고 장단에 심어나 보세나.
겨울날 차가운데
편이 앉아 체식하니
인간의 지락이나
어혀여혀 상사뒤여
남방초야 네가왔다
우리님이 모재드냐
우리님이 보낼적에
아모말씀 안하든가.
남춘천 달밝은데
순임금의 놀음이요
오유월이 당도하니
우리농부시절이라
모시야적삼 시적삼에
분통같은 저것봐라
많이보면 병난다네
상금살금 보고가자
불빛을 등에지고
진흙물에 들어서서
이 농사를 이리지어
누구하고 먹자하노

사람마다 벼슬하면
농부될사람 어데있나
의사마다 병고치면
북망산천 왜생겼나
서울이라 연을띄워
거거옥당 연걸렸네
아래웃방 시녀들아
연줄긋는 구경가세
수건수건 반백수건
임이주든 반밸란가
수건귀가 떨어지면
임의정도 없어지지
여보아래 농부들
말들어 보게
나라국곡을 하려니와
부모봉양 늦어간다
에헤어헤 어헤야
따에루 상사데야
여보아라 농부들
말들어 보게
이논뱀이 얼른매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에헤에헤 어허야
따여루 상사데야
우리오라비 양모배자
어느누가 누볐는고
서울기생 졸음나고
평양기생이 누볐다네
유자와 탱주는 의가좋아
한꼭지에 둘이여네
처녀총각은 의가좋아
한벼개에 잠이드네
저달은 하나라도
팔도를 보건만은
요내눈은 둘이라도
님하나 밖에 못보네
패랭이꼭지 상화를 꽂고
마을애기 춤이나 추어보세
얼널널 상사두야

청양지역에서는 비봉면 강정리 갈마마을에서 모내기두레가 행해졌다. 이곳은 홍성군과 청양군 화성면과의 경계지역으로 마을 앞으로 '가라미뜰'이라 불리

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이 들은 강정리뿐만 아니라 이웃한 홍성군에서도 농사를 짓는 곳이며, 청양군 화성면으로까지 들이 이어져 있어 인근에서는 가장 넓은 들로 이름나 있을 정도로 넓은 들이다. 들 가운데에는 강천이라는 냇가가 있어 홍성과 경계를 이루며 예전에는 정월 보름에 쥐불놀이를 하기도 한다.

이 마을에서 모내기는 망종 무렵부터 시작되는데, 망종 때 심는 모는 상당히 빨리 심는 모에 해당한다. 두레 준비는 이월 초하루에 두레 회의부터 시작된다. 첫 두레회의 때는 좌상을 뽑고 두레꾼이 모두 모여 그 해의 계획을 세운다. 본격적인 두레 준비는 못자리를 낸 후에 시작된다. 못자리를 내고 나면 모내기 두레를 위한 두레회의를 소집해 두레 나가는 날짜와 두레를 도는 순서 등을 정한다. 모를 심는 순서는 주로 마을 아래의 큰 들인 '가라미들'에서 시작해 마을 인근의 '구레뜰' 방향으로 올라오며 이루어진다. 이는 마을 아래는 큰 논은 물이 부족하면 쉽게 가물 수 있어 물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물을 대고 모내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갈마마을 인근의 구레뜰은 샘이 가깝고 본래 물이 많은 곳이라 조금

늦게 모를 내도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를 낸다.[7]

모내기는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내기두레는 아침 일찍 모여 늦은 시간까지 작업이 이루어진다. 거의 하루의 모든 시간을 논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작업 중간에 점심 식사를 하고 한두 차례 참도 먹는다. 산식으로 모내기를 할 때는 없었지만 줄모심기가 보편화되면서 모내기두레 때에는 모와 모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는 '줄잽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 이 역할을 담당하며 논의 양쪽 가에서 줄을 옮기는 역할을 맡아서 한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모를 심지 않고 줄만 잡아 주는 줄잽이가 따로 있다고 하지만 청양지역에서는 두레패가 크지 않아 따로 줄잽이를 두지 않고 일꾼과 함께 일을 하는데, 단지 논의 양 끝에 서

---

7) 현재 갈마마을에는 해방 후 축조한 저수지가 있어 언제나 물이 부족하지 않고 풍부하다. 또한 저수지를 축조하기 전에도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지하수가 갈마마을을 지나 강천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물이 풍부하고, 가뭄이 심한 시절에도 물이 부족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인근 마을에서는 가뭄이 심하게 드는 해에는 '갈마마을에 물 마를 듯 가물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서 모를 심어 나가는 중에 칸에 맞추어 줄을 옮기고 간격을 맞춘다.

모내기를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물이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시기가 빨라지거나 늦어지기도 한다. 지금처럼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물이 풍족한 경우에는 모내기를 모두 금방 끝낼 수 있지만 예전에는 물을 댄 논부터 순서대로 해야 했기 때문에 모내기 기간이 오래 걸렸다. 특히 가뭄이 들었을 때는 물이 많이 부족하여 장마가 지나서야 겨우 늦모로 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모내기기 기간은 정해져있기는 하지만 변동이 많고, 그래서 모내기 두레는 망종 무렵에 행해지는 모내기에만 해당된다. 만약 늦모를 심게 되는 경우에는 마을에서 두레로 모를 내는 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두레로 하지 않고 늦모를 심는 집에서 알아서 품앗이를 하거나 일꾼을 사는 등의 방법으로 모내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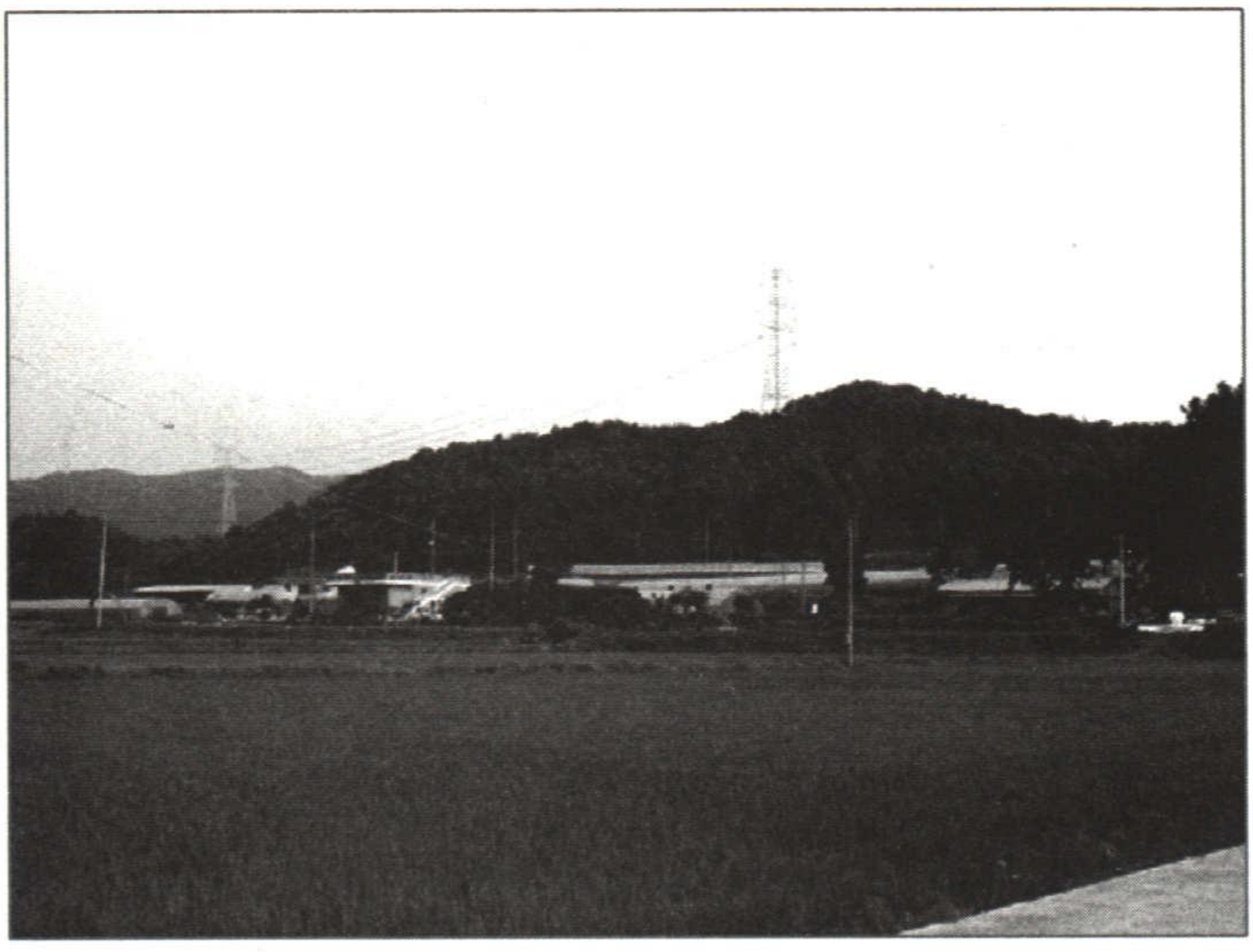
하지(夏至)가 지나서 모를 심으면 수확량이 적어지지만 논을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는데, 이를 '이름 짓는다'고 한다. 실제 농사일을 한 만큼 수확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농

사짓는다는 것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서 하지가 지나서는 모를 심지 않고 메밀을 대신 심기도 한다.

(2) 김매기

모를 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농경지에 여러 가지 잡초가 돋아나 벼와 함께 자라면서 작물의 성장을 저해한다. 그래서 모를 심은 후 20~30일 정도 지나면 잡초를 뽑아주어야 하는데, 이를 '논매기'·'김매기'라고 한다. 김매기는 호미를 가지고 논에 있는 잡초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논바닥을 찍어 당겨서 땅을 갈아엎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벼의 성장에도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김매기 작업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잡초를 제거해야 하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벼의 성장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 더구나 한꺼번에 많은 일손을 들여 작업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내기와 함께 김매기는 농사일 중에서도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며, 수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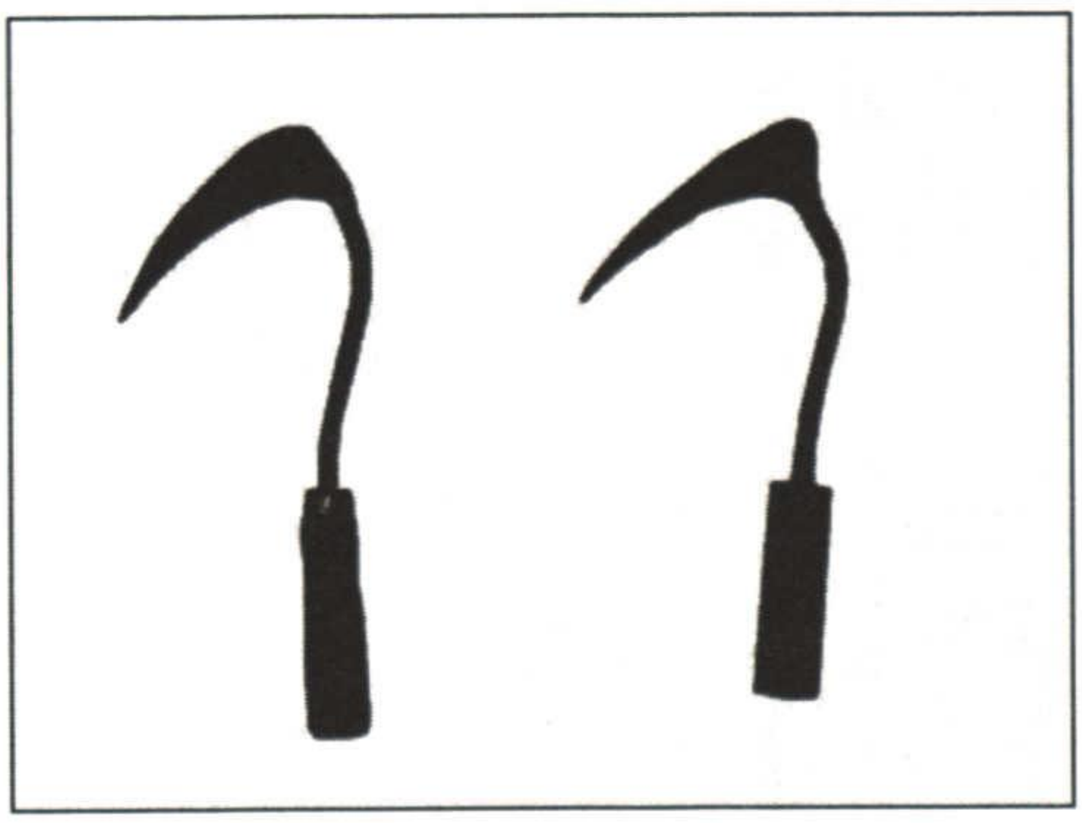


〈사진 5〉 김매기가 모두 끝난 논의 모습(청남면 천내리 인근)

그래서 각 마을에서는 두레를 통하여 공동으로 김매기 작업을 해서 농사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모를 심은 후 처음으로 김매기를 하는 것을 '아시매기' 혹은 '아시 맨다'고 한다. 아시매기를 하고 10~15일이 지나면 또 김매기를 하는데 이를 '두벌매기' 혹은 '두벌 맨다'고 한다. 아시매기와 두벌매기 때에는 호미를 이용해 잡초를 파내거나 흙으로 덮는 작업을 한다. 두벌매기가 끝나고 15~20일 정도가 지나면 마지막으로 '세벌매기'를 하는데, 이때는 '만물매기'라고도 한다. 만물매기 때에는 큰 잡초들은 대부분

제거가 되었고 작은 잡초들을 뽑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미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작업을 한다. 경우에 따라 잡초가 많은 논은 네 번 이상 김매기를 하기도 하는데, 두레는 만물매기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김매기는 필요한 가구에서 품앗이를 이용해 작업을 한다.



〈사진 6〉 호미

청양지역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아시매기부터 만물매기까지 김매기의 전 과정을 두레로 했지만 청남면 인양리의 경우 두벌매기와 만물매기 때만 두레를 했다.

두레는 대개 아침 일찍 마을의 정자나무 아래와 같은 넓은 공터에 모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을에

징소리가 나면 일꾼들은 집에서 각자 아침밥을 해결하고 일정한 장소로 모인다. 모든 일꾼이 모이면 좌상이 그날의 일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풍물을 치며 논으로 출발한다. 농기를 앞세운 두레패는 풍물 장단에 맞추어 논으로 향해 간다. 논에 도착하면 두레기를 작업할 논 주변의 평평한 곳에 꽂아두고 일꾼들은 논에 들어가 작업을 시작한다. 김매기는 호미로 하나씩 흙덩이를 엎어나가거나 '손으로 훔친다'고 해서 풀을 뜯어나가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김매기 호미는 손잡이 부분을 짚으로 감아 빠지지 않게 단단히 여민다. 두레 일은 일렬로 서서 시작해 대개 원을 그리면서 이동한다. 그동안 풍물을 치는 사람들은 논두렁에서 나갈 때부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악기를 치기도 하고, 선소리꾼이 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좌상의 지시에 따라 진행 된다. 하루 동안의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 마을에서 두레가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풍물을 치면서 마을로 돌아온다.

김매기 두레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데 다음과 같은 민요가 조사되었다. 이 민요들은 2004년 조사해 발간한 『청양의 민요』에서 발

췌하였다.

논매는 소리 (1) (이가락) 8)

이~ 이~ 이~ 에헤~ 에~ 에~ 이~ 에헤~ 에~ 아~ 상사디
요~
에~ 이~ 어~ 헤어~ 에~ 에~ 이~ 에허~ 에~ 아~ 상사디
요~

논매는 소리 (2) 9)

어~~~허~~~~~
허~~~에~~에~~
상사여~~어~~~

---

8) 윤정근(남, 74세,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2구) 논을 맬 때 하는 소리로 두레소리, 만물소리라고도 한다. 논을 매러 가는 것을 '두레 나간다'고 하며 이때는 꽹과리, 북, 장구 등 풍물을 치며 나가고 논에 도착해 소리를 시작하면 장구만을 가지고 소리를 한다. 주로 이가락으로 소리를 시작하는데 속도가 매우 느리고 길게 늘어진다. 때문에 금방 숨이 차올라 소리를 이어가기 어려워 이가락을 하는 선소리꾼을 최고로 여긴다. 이가락으로 시작된 소리는 논매는 속도에 맞추어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는데, 민요나 유행가가 선소리로 매겨지기도 한다. 이가락은 선소리꾼이 메기는 대로 일꾼들이 받아서 소리를 한다.

9) 유진영 (남, 80세,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도련님이 가신단다 이별주를 갖추어라
향단이랑 술상드리고 춘향이랑 술병들고
도련님 나오너라~~아~~
아~~예~~이~~~~~~~~~~~~아~~아~~~~~~~~~

어~~어~~어~~~~~예~~~
털석어~~
반병이오 부질 것은 임이로다
임아임아 서방님아
요한 것은 손넘어게
동화같이 못된 님에
피고같이~~
동짓섣달긴긴밤에 이~~
나던네야 아~~~
아~~아~~아~~에~~아~~아~~에~~

이~~허~~에~~이야~~아~
상사~아~~예~~에~~
오하오하 상사디여
(여럿이)오하오하 상사디여
상사소리 나고들은
오하오하 상사디여

논매는 소리(3) (벙어리두레)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사람은적어도
얼카덩어리
오늘은 이곳에서
얼카덩어리
내일은 이리로 가나
얼카덩어리
삼간에 일간뎅이로
얼카덩어리
드믄드믄메어나볼까
얼카덩어리
석양에 해는 걸쳐
얼카덩어리
일거리많은데
얼카덩어리
오여발을 멀리멀리
얼카덩어리
자진가락으로 넘어갈까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어여차덩어리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욱여드름이여(좁혀가며)

에이…….

두레를 나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논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식사도 논에서 공동으로 하게 되는데, 점심때가 되면 여성들이 논으로 직접 식사를 가져다 준다. 점심 식사 외에도 식사 시간의 사이에 간식을 먹기도 하는데, 이를 '참' 혹은 '젓거리'라고 부른다. 식사는 주로 밥과 국, 반찬을 준비해 오고 젓거리는 국수나 수제비, 칼국수 등과 함께 술을 가지고 온다. 음식은 각자의 가족이 책임지고 가져오는 것이지만 대개 부엌과 마당이 넓은 집에 마을 여자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장만해 공동으로 내어가는 경우가 많다.

대치면 마치리에서는 김매기 두레가 끝나면 '맨드레 할머니'가 와서 확인을 한다는 말이 전해진다. 칠

월칠석날 '맨드레 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논을 깨끗하게 매 두었는지 확인하고 '이 논은 잘 맸으니 열섬 먹어라 저 논은 열 말 먹어라' 하며 그 해의 수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칠석이 되기 전에 논과 밭을 깨끗하게 잘 매어 놓아야 하고 논밭 둑에 난 풀도 베고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김매기의 필요성을 일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농사의 과정에서 김매기가 곧 생산량과 결부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각 마을에서 행해지는 두레 김매기의 양상

• 남양면 용마리

남양면 용마리에서는 아시매기와 만물매기 때 두레가 행해지고, 두벌매기는 각 집안에서 품앗이를 이용하거나 일꾼을 사서 나름대로 해결한다. 아시두레와 만물두레는 각각 따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두레를 하기 전과 만물두레를 하기 전에 각각 두레공론을 연다. 두레공론 때에는 두레의 임원을 결정하고 두레를 행할 시기를 결정한다.

아시매기는 주로 호미를 사용한다. 아시 때 좋은

논은 물이 마르지 않아 물렁물렁한 논이고 반대로 나쁜 논은 물이 말라 딱딱해진 논이다. 좋은 논은 굳이 호미로 김을 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매기도 하고, 나쁜 논의 경우 호미로 매었다. 김매기 동안 일꾼들은 호미는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김을 맬 때 사용한다.

만물매기 때에는 모두 손으로 맨다. 아시매고 15일 후 두벌 매며 두벌을 매고 20일 후에 만물을 맨다. 용마리의 두레는 경제가 나쁠 경우 거르는 때도 있기도 했지만 거의 매년 거르지 않았다.

두레가 끝나면 소유한 논의 크기에 따라 한 마지기 당 일정 금액을 정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걷는다. 같은 한 마지기라 할지라도 논의 좋고 나쁨을 가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 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돈을 조금 더 낸다. 결과적으로 적게 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나 마을 전체의 공동의 일이고 마을 기금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를 두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레로 발생한 기금은 가마나 상여 등과 같은 마을의 공동 재산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 **대치면 장곡리**

대치면 장곡리에서는 김매기 때 두레를 한다. 모를 심고 약 25일이 지나면 호미로 아시 파는 것을 시작으로 두벌, 세벌까지 맨다. 세벌은 대개 논매기 만물이라고 부른다. 논에 풀이 많거나 부지런한 사람은 네 벌까지 맨다. 이때에는 네 벌 매는 것을 만물로 친다. 장곡리의 두레는 아시부터 두벌, 만물 때까지 세 차례 모두 나간다.

오늘날은 못자리를 하우스 씌워서 시일을 빨리 하는데 예전에는 물모자리라 하여 물에 담아 두고 모판에 떠서 손으로 직접 뿌렸다. 이후 15일 정도가 지나면 싹이 나고, 늦어도 5월 초까지 모심기를 끝마쳐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모를 빨리 심는 사람이 있고 늦게 심는 사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5월 초까지는 모를 심어야 하지만 당시만 해도 양수기 등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때에 따라 자주 시기가 변화하곤 하였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5월 25일 경이 되면 아시매기에 들어간다.

아시매기와 두벌매기는 호미로 하고 마지막 만물매기는 손으로 한다. 마을 전체가 김을 한 번 매는

데에는 4~5일이 걸렸다. 당시 장곡리의 농토 면적은 400마지기 정도였는데, 4~5일 정도가 걸렸다는 것을 보면 두레로 하루에 100마지기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시매기 후 일주일 후 두벌매기에 들어가고 두벌매기 후 10~15일 후 만물매기 한다. 두레로는 세 번 맬 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김을 매는 것은 각자 해결한다.

두레 일을 할 때에는 아침 6시 반이면 아침을 먹고 7시에 정자나무 아래에서 모여 논으로 나갔다. 점심은 집집마다 각자 해결하지만 부유한 집에서 식사나 참을 대접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럴 경우 점심을 낼 집에서 미리 사령이나 이장에게 내일 음식을 내어 오겠다고 알려 일꾼들이 각자 점심을 싸오는 것을 막아 점심준비가 겹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이 없는 평소에는 각자 집에서 내어 온 것으로 해결하였다.

두레 일을 끝마치면 한 마지기 당 얼마의 금액을 책정하여 그 돈을 걷는다. 이는 사람들에게 품값으로 돌려주는데, 소유한 논의 마지기 수에 따라 차등 분배하였다. 10~15마지기 이상의 논을 소유하여 자가소

비가 가능한 사람들은 품값을 따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영세민들을 주 대상으로 주었다. 논을 적게 소유한 사람은 일당을 더 받아가고 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오히려 돈을 내놓아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 마을에서 많은 논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몇 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적은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영세민이었다. 이들은 두레를 통해 일을 하고 품값을 받는 것보다 개인이 품을 팔아서 받는 품값이 더 많았기 때문에 두레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두레를 하고 남은 돈은 마을에서 공동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 비봉면 강정리 갈마마을

비봉면 갈마마을 두레는 모내기부터 시작하여 김매기 때 활발하게 행해진다. 모를 심고 일주일 후 손으로 간단하게 논을 매는데, 이를 손매기라고 한다. 모를 심고 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심기 때문에 흙이 물 위로 올라온 곳도 있고 물 아래로 내려간 곳도 있고 해서 땅이 울퉁불퉁하다. 그런데 잡초는 주로 물 위로 흙이 올라온 곳에서 잘 나기 때문에 손매기를 하면서 손으로 논을 편평하게 만들면서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잡초를 뽑아주는 것이다.

손매기를 하고 나면 논에 실금이 갈 정도로 살짝 말린다. 그리고 다시 물을 넣고 보름 정도 지나면 초벌을 맨다. 이때는 호미로 논을 매는데, 밭을 매듯이 땅을 찍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모 사이의 흙을 긁어내듯이 끌어당겨 옆에 쌓아 둔다. 호미로 초벌매기를 하고 10~15일 정도 지나면 두벌을 매고 이때도 호미를 사용한다. 두벌을 맨 후 열흘 정도가 지나면 만물을 매는데 이때는 손으로 한다. 늦모를 심은 경우에는 김을 맬 틈이 없기 때문에 매지 않는다.

성인 남성들이 두레꾼으로 참여하여 일을 하는 하루 동안 여성들은 오전 10시에 아침참을 내어주고, 점심을 내고, 4시쯤 저녁참을 내는 것으로 하여 3차례 정도 음식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 일을 한다.

• 정산면 군량리

정산면 군량리 두레는 김매기 중에서도 주로 만물매기 때 한다. 논을 맨다는 자체보다는 동네 단결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 두레로는 논의 위치에 따라 위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간다. 마을의 논을 모두 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작하면 2~3일 내에

끝이 난다. 식사는 경작지가 많은 부유한 마을 주민이 식사나 참 등을 대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각자의 집에서 준비해 해결한다.

품삯을 따로 주지는 않으며 두레에서 발생한 기금은 마을 공동의 재산이 된다. 마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레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정산면 낙지리

정산면 낙지리 두레는 김매기 때 주로 한다. 두레 회의를 통해 아시매기, 두벌매기, 만물매기의 세 차례 중에서 한번만 김매기두레를 연다. 두레를 하지 않는 나머지 김매기 때는 품앗이를 하거나 품을 사서 쓰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한다. 두레에서 발생한 돈은 마을 기금으로 사용한다.

• 정산면 마치리

정산면 마치리 두레는 논의 김을 맬 때 주로 한다. 모 심는 날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을 하는데 날이 겹칠 경우 서로 양해를 구하고 순서를 정한다. 김은 총 세 벌을 매지만 두레로는 만물매기 때 한 번

만 한다.

두레는 사흘이나 닷새정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 논 상태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라 차등하게 돈을 받는다. 마지기 수가 같다 해도 다른 금액이 책정되기도 한다. 논의 풀이 많고 적은 정도에 따라 상·중·하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일한 품값을 결정하는데 풀이 많은 논이 상, 풀이 적은 논이 하 등급에 해당한다. 또한 물이 없어서 마른 논은 작업하기에 더 힘들기 때문에 물이 많은 논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논을 소유한 사람은 그 크기에 따라 논 값을 내야 한다. 논 값은 논을 맨 후 결정하는데 풀이 난 정도, 땅이 무른지 딱딱한지 등에 따라 차등으로 매긴다. 일을 하러 나오지 못하면 그 날의 품값을 내 놓아야 하는데 그 날 두레패가 맨 논의 양만큼 품값을 내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 두레패가 10마지기를 일했고, 한 마지기의 값이 만 원이라면 두레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10만 원을 내 놓아야 하는 것이다. 두레를 통해서 걷어진 논 값과 두레 불참자들이 낸 품값은 마을의 재산이 되어 대동계에서 사용한다. 마치리에서

는 이 기금을 산제를 올릴 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

• 정산면 와촌리

정산면 와촌리 두레는 논농사 중에서 김매기 때 주로 한다. 때문에 여름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식사는 각자 집에서 내어다 먹는 것으로 해결한다.

논의 주인은 논의 크기에 따라 두레에 돈을 내야 한다. 두레가 끝난 뒤 칠석날 두레를 먹으면서 두레장과 마을 이장이 담당하여 정산한다. 이는 마을 기금으로 활용한다.

• 정산면 천장리

정산면 천장리 두레는 김을 매는 세 차례 모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중 한 차례만 나가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 호미로 아시매기를 하고 10일 정도 후 흙덩어리를 고르고 마지막으로 손으로 뽑는 만물매기를 한다. 일하는 도중 점심은 도시락처럼 각자 집에서 준비해 온 것으로 먹는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두레일을 할 때에 점심과 젓밥을 준비한다. 젓밥은 끼니와 끼니 사이에 먹는 것으로 술과 간단한 안주로 준

비한다. 젓밥은 오후 3~4시쯤 먹는 것으로 술과 함께 콩국수 또는 칼국수를 준비해간다. 여성들은 부엌이 큰 집에 함께 모여 음식을 장만한다.

천장리 두레는 마을 전체의 일로 생각하여 품삯을 따로 계산하여 주지 않는다. 다만 두레에 불참한 이에게 돈이나 쌀을 받는다. 이를 통해 모인 기금은 칠석날 두레를 먹는 것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 청남면 내직리

청남면 내직리 두레는 김매기 때 한다. 하지가 오기 전에 모를 내고 약 15일 후에 아시매기 한다. 두벌매기는 10일 이내에 하고 이 때 까지 호미를 사용한다. 만물은 두벌매기를 마치고 10일 정도 후에 손으로 한다. 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돈을 더 내고 적게 소유한 사람은 덜 낸다. 경지의 넓이에 따라 품값을 차등하게 매긴다. 두레에 불참한 이는 두레에 그 날의 품값을 내야 한다.

• 청남면 천내리

청남면 천내리 두레는 아시 맬 때 나간다. 김을 매

기 시작할 무렵 일시에 김매기가 시작되어 일손이 부족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나서서 작업한다. 아시 때에는 호미를 사용하며, 두벌 맬 때와 만물 맬 때에는 서너 명이 품앗이를 짜서 하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였다. 만물이 끝나면 한 해 동안 호미를 쓸 일이 없다 하여 흙을 씻어둔다.

한 집에 한 명은 두레에 참가해야 하지만 노동이 가능한 구성원이 없어 나올 수 없는 경우두레에 품값을 내야 한다. 또한 두레패의 구성원이 참여하지 못한 날이 있을 경우 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불참전이라 한다. 품값 수금은 특정 날짜를 정해두고 좌상에게 낸다. 모인 돈은 마을의 공동 기금으로 사용하며, 이를 가지고 칠월 칠석에 두레를 먹는다.

각자 논의 크기에 따라 두레에 논 값을 지불한다. 마을 공동 소유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경우 소작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논 값을 내야 한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마을의 공동 기금이 되며, 두레로 모은 공동 기금을 마을 주민이 가져다 쓸 경우 이듬해에 이자를 쳐서 받는다.

(3) 퇴비 만들기

농사에서는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퇴비를 땅에 뿌린다. 퇴비는 주로 짚이나 잡초, 낙엽 등을 쌓아두고 물을 끼얹어 썩힌 후 이용한다. 따로 퇴비를 만들 곳을 정해두기도 하지만, 논에 직접 풀을 심고 이것이 자란 후에 베어서 땅을 갈아엎음으로써 퇴비로 썩혀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에는 주로 '자운영'을 이용한다. 자운영은 콩과의 식물로 논과 밭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다. 약초로도 사용되는데, 농가에서는 퇴비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

청남면 천장리와 정산면 군량리에서는 자운영을 이용해 자연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 두레를 이용한다. 하지만 모내기 때의 두레나 김매기 때의 두레처럼 풍물을 치고 두레패를 조직적으로 구성해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김매기가 모두 끝나고 추수하기 직전, 논에 자운영 씨를 뿌려둔다. 이때는 이미 벼가 다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자운영을 뿌려도 벼의 생장에는 방해가 되지 않고, 추수를 할 무렵이면 싹이 돋아 나온다.

예전에는 낫으로 추수를 하기 때문에 벼의 밑동이 길게 남아 자운영이 겨우내 얼지 않고 자랄 수 있게 된다. 이를 그대로 두면 이듬해 봄에 자운영이 자라나는데, 땅을 갈기 전 자운영을 베어서 여기저기에 흩뿌려 놓는다. 그리고 나서 땅을 갈아엎으면 자운영이 흙과 뒤섞여 썩게 되고, 이것이 결국 퇴비가 된다. 자운영은 뿌리에 뿌리혹박테리아가 붙어서 질소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자연비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운영으로 만든 퇴비를 사용한 논에서 나온 쌀은 일반 쌀보다 찰지고 맛도 좋아서 최근 친환경 농법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4. 두레놀이

(1) 농악(두레풍장)

두레가 나가고 일을 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악(農樂)'이다. 농악은 꽹과리, 징, 장구, 북과 같은 타악기를 치며 행진이나 의식, 놀이 등을 벌이는 것을 말하며 지역에 따라 풍물(風物), 굿, 매구, 풍장, 금고(金鼓), 취군 등으로 불린다.



〈사진 7〉 농악의 대표적인 악기
(장구, 북, 꽹과리 징)

농악은 연주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월에 마을에서 동제나 당산제를 지낼 때 농악을 치는데, 이를 당굿·당산굿이라 한다. 또한 마을의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마을의 집집마다 도는 집돌이의 형식으로 농악을 치기도 하는데, 이를 지신밟기·마당밟이·답정(踏庭)굿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걸립·걸궁이 있는데, 이는 풍물패가 집집마다 들러 고사를 지내고 돈과 쌀을 거두어 가는 것으로 직업적으로 고용된 전문적인 농악수들로 조직된 걸립패들이 주로 한다. 그리고 농부들이 두레를 짜서 김을 매러 나갈 때나 김을 맬 때, 그리고 김을 매고 돌아올 때, 호미씻이와 같은 두레놀이를 할 때 농악을 치는데, 이를 두레풍장·두레풍물이라 한다.

청양지역에서는 보통 '풍장'이라고 많이 하는데, 청남면 천내리와 중산리에서는 '농악(農樂)', 청양읍 벽촌리에서는 '풀물'이라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구분해 사용하지 않고 농악과 풍장, 풍물이란 말을 섞어 가며 사용한다.

① 두레 노동과 두레풍장

두레풍물은 첫 두레가 나갈 때와 칠월 칠석 때의 두레 먹기 때 가장 크게 편성된다. 이때는 풍물을 치는 악기 잡이뿐만 아니라 잡색도 뒤에 따라가고 일꾼 중 일부가 소고를 치면서 대대적으로 나간다. 하지만 평소에 두레를 나갈 때는 잡색과 소고를 치는 사람은 없고 모두 일꾼으로 나간다.

논에 도착하면 다른 일꾼들은 모두 논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하고 풍물패는 일의 속도에 따라 가락을 맞추어 연주한다. 악기 잡이들은 논에 들어가지 않고 논둑에서 악기를 치는데, 다만 모내기 때 두레를 하는 경우에는 논에 들어가서 악기를 치기도 한다. 악기를 칠 때는 가만히 서서 치는 것이 아니라 흥에 따라 왔다갔다 움직이며 치는데 김매기 때는 논에 모가 많이 자라 잘못하면 모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논둑에서 치는 것이다. 하지만 모내기 때는 논이 비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쳐도 무관하기 때문에 논 안에서 치기도 한다. 논에 들어가서 칠 경우에는 모를 심어나가는 뒤쪽으로 아직 모를 심지 않은 쪽에서 풍물을 치거나 아니면 장구를 치는 사람만 들어가서 치기

도 한다. 풍물패들은 계속 풍물만 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하기도 하며, 이때는 다른 악기는 쉬고 장구나 북으로 반주만 한다. 상쇠나 태평소를 부는 사람이 주로 선소리를 하며 일꾼들이 후렴구를 부르며 일을 한다. 남양면 용마리에서는 노래를 선창으로 메기는 사람을 '사령'이라고 부른다. 농사일을 하면서 악기도 치고 노래도 부르는 것은 일꾼들끼리 박자를 맞출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을 높이고 노동의 힘겨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논에서 일을 모두 마치고 돌아올 때도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풍물을 치며 돌아온다.

김매기가 끝나고 농민들이 휴식을 하며 잔치를 벌이는 '두레 먹기' 때는 잡색과 소고 등도 참여해 풍물패가 크게 벌어지고, 인근 마을과 농악대회를 벌이기도 한다. 이때는 잔치를 위한 풍물이기 때문에 빠른 가락을 많이 연주하며, 마을 사람을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해 춤판이나 노래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신명에 따라 악기를 돌아가면서 치기도 하는 등 한바탕 놀이판이 벌어지게 된다.

비봉면 강정리 갈마마을의 경우 첫 두레가 나가는

전날 마을 정주나무에 농기를 세워두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물을 치고 한바탕 잔치를 벌인다. 이 때 농기 앞에 술을 부어다 놓고 아무 사고 없이 두레가 잘 끝나고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기도 한다. 이는 미리 악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풍물패가 연습을 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농기 앞에 술을 붓고 무사안녕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의례적인 의미도 담긴 행사라 할 수 있다.

② 두레풍물의 구성

농악을 치는 일련의 사람들을 가리켜 '농악패'·'풍물패'·'풍장패'라고 부른다. 풍물패의 편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농기(農旗)'와 농기를 드는 '기수', 악기를 연주하는 '잽이', 탈을 쓰거나 분장을 하고 춤추는 '잡색'으로 구성된다. 청양지역에서도 풍물을 칠 때 이와 동일한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기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뒤로 풍장을 치는 사람들과 잡색이 뒤따른다. 두레풍장 때는 두레의 수장인 사령이 농기 앞에 서기도 하는데, 길잡이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풍물패 뒤로 두레 일꾼들이 따른다.

• 악기 잡이

청양지역에서는 풍물에 쓰이는 악기를 치는 사람을 보통 '풍물 잡이'·'악기 잽이'라 하는데, 이를 줄여 그냥 '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풍물에 쓰이는 악기는 꽹과리, 장구, 북, 징, 소고, 태평소 등이다. 대치면 장곡리와 비봉면 강정리의 경우 소고를 치는 사람도 있다.

악기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 맡아서 연주하는데, 마을 사람들 중에서 특히 신명이 있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맡아서 한다. 풍물을 치는 사람은 두레 일을 하는 중에도 계속 악기를 쳐야 하기 때문에 일꾼이 많이 필요한 두레에서는 대체로 한 악기에 한 명이 담당하지만 두레패가 커서 일꾼이 풍부한 곳에서는 여러 사람이 악기를 치기도 한다. 여러 악기 중에서 태평소는 연주하는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태평소를 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마을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에서는 태평소를 따로 배우러 다른 마을로 가기도 한다. 꽹과리를 맡은 사람을 '상쇠'라 하는데 악기도 잘 다루고 가장 신명이 있는 사

람이 맡는다. 두레가 나갔다 들어오고 또 두레 일을 하는 동안의 모든 풍물 가락을 상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꽹과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가장 잘 치고 이끄는 사람을 상쇠라 하고 나머지를 부쇠라 한다. 장구를 치는 사람을 이끄는 가장 잘 치는 사람은 상장구, 북은 수북이라 부르는데 이는 한 악기에 연주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풍물패들만의 특별한 복장은 없지만 비봉면 강정리에서는 고깔을 쓰기도 한다.

풍물에 쓰인 악기는 한꺼번에 모아서 보관하는데, 주로 마을 공동 창고를 이용한다. 마을에 따라서 사랑이 큰 부잣집에서 대신 보관해 주기도 한다.

• 잡색

잡색은 탈을 쓰거나 분장을 하고 풍물패 뒤를 따르며 흥을 돋우는 사람들인데, 두레풍장에는 잡색이 따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청양지역에서는 두레풍장 때에도 잡색이 따른다. 대치면 장곡리에서는 잡색을 '꽃나비'라고 부르는데 무동을 타는 아이와 탈을 쓴 사람, 여자복장을 하는 사람, 중으로 분

장을 한 사람, 포수 등으로 구성된다. 두레 때 잡색이 따르는 경우는 그 해 처음으로 두레를 나갈 때와 두레가 끝나고 마을에서 잔치를 벌일 때만 편성된다. 평소에는 잡색이 따르지 않고 풍물패만 두레패 앞에서서 나간다.

무동을 타는 아이는 두레 일꾼이 아닌 10여세의 어린 아이가 장정의 어깨 위에 올라가 어깨춤을 추는 것으로 겁이 없는 아이들이 주로 했다. 탈을 쓴 사람은 '탈꾼'이라고 한다.

비봉면 강정리 갈마마을에서는 바가지를 반으로 잘라 말려서 그 위에 마치 도깨비와 같이 얼굴을 험상 굳게 하고 이빨도 뾰족하게 그려서 탈을 만든다. 탈은 모양새가 무섭고 사람 얼굴 생김새 같다고 해서 그냥 보관하지 않고 반드시 상여집[10]에만 보관했으며 썩거나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태운 후 다시 만든다.

---

10)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여를 보관하는 곳이다. 마을마다 상여집이 있었는데, 상여를 보관하고 있고, 죽음과 관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평소에는 상여집에 가는 것을 금하기도 한다.

여장을 한 사람은 17~18세 정도의 청년이 하는데, 노랑이나 파랑 저고리에 빨강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고깔(께깔)에 종이꽃을 달아 쓴다. 또 여자처럼 화장도 한다. 고깔 대신에 가발로 만든 댕기를 머리에 달고 수건을 쓰기도 한다. 여장남자를 한 잡색은 한명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곡리의 경우 2명이 했다. 대치면 장곡리에는 중 복장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를 땡땡이중이라고 불렀다. 17세 정도의 청년이 하얀 도포를 입고 양쪽으로 하얀 어깨끈을 하고, 흰 고깔을 쓴다. 대개 중은 회색 옷이지만 꽃나비를 할 때는 하얀 옷을 입는다.

비봉면 강정리 갈마마을에는 중대신 포수가 있는데, 별다른 복장 없이 얼굴에 재로 검은 칠을 하고 나무총을 들고 나간다.

• 농기

농기는 마을의 상징적인 존재로 두레패가 나갈 때에는 항상 기가 앞장선다. 두레기라고도 한다. 마을마다 다른 형태를 하고 있으나 하얀 천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쓰인 경우가 많으며, 용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다. 글자가 쓰인 농기는 세로로 긴 데 비해 용 그림이 그려진 농기는 가로가 긴 직사각형의 형태이다.



〈사진 8〉 농기의 모습

용을 그린 것은 용이 수신(水神)이기 때문에 물이 중요한 농사에서 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농기의 기폭에는 검은색이나 푸른색, 또는 붉은색의 테를 둘러 장식하는데, 삼각형 모양의 톱니처럼 테를 두른다. 농기의 꼭대기에는 꿩 털을 달았다. 굵고 큰 대나무 기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양에는 길고 두꺼운 대나무가 없어 전라도에서 사 오는 경우도 있었다.

농기는 두레 나갈 때마다 가지고 가는데 그 크기가 대단히 커서 힘이 좋은 장정만이 들 수 있다. 장정이 가운데서 깃대를 잡고, 농기 맨 위에 새끼줄을 2개나 3개 매어 주변에서 보조하며 잡고 나아간다. 농기가 설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이 줄을 '깃줄'이라 한다.

두레 때 기를 맡아서 들고 다니는 기수는 거의 일을 하지 않으며 깃대만 잘 모신다. 농기 앞에는 영기(令旗)라 하는 작은 기를 두 명의 총각이나 어린 아이가 들고 간다. 논에 도착하면 터가 넓은 논둑에 말뚝을 박고 깃줄을 묶어 농기를 세워둔다. 영기는 큰 기 옆에 좌우로 벌려 꽂아둔다. 농기는 상징적인 존

재인 동시에 존엄한 것이어서 이렇게 기를 세워두면 지나가던 사람이 기에 절을 하고 지나간다. 대부분 두레에 나갈 때마다 농기를 가지고 가지만 청남면 내직리 두레의 경우처럼 먼 논에 나갈 때는 농기를 마을 입구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고 논에는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청남면 천내리 두레에서는 처음 두레 나가기 전날 정주나무에 농기를 세워두고 풍물을 치며 놀았다. 이 때 두레기에 술 한 잔 부어 올리기도 한다. 비봉면 강정리 갈마마을 두레에서도 두레 나가기 하루 전날 마을 정자나무에 농기를 세워두고 동네사람들을 모아 풍물을 치며 한바탕 논다. 이 때 농기에 술도 부어 올린다. 농기는 마을의 상징이자 동네를 대표하는 표상이고, 권위이기 때문에 타동네 사람들이 농기 앞을 지나갈 때는 기에 절을 해야 한다. 절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불러 세워서 절을 일부러 시키고 농기에 절을 하지 않은 벌주를 먹이기도 한다.

농기는 주로 좌상의 집이나 4~5칸 정도 길게 지은 집으로 처마의 공간적 여유가 되는 집에 보관한다. 정산면 천장리의 농기는 산제 때에도 사용하기 때문

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음력 섣달에 산제 때 화주 닫는 집에 세워 둔다. 현재는 이를 이장이 관리하고 있다.

(2) 두레싸움

두레싸움은 농기싸움이라고도 하며 두레기를 매개로 각 마을의 두레패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이다. 두레 일을 나가다 보면 이웃마을의 두레와 마주치는 경우가 생기에 된다. 이 때 간혹 두레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두레는 각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인 농기를 앞세우고 갈뿐만 아니라 두레패 자체가 마을을 대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레패가 마주쳤을 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예(禮)이다. 그런데 마을 사이에도 어른마을로 여겨지기 때문에 서로 인사를 받으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마을의 규모가 크거나 역사가 긴 마을이 어른마을이 되어 인사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두레패의 규모가 큰 경우 일꾼의 수도 많고 그만큼 힘이 센 마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힘이 약한 마을이 어른마을의 두레기

앞에서 풍물을 치며 자신들의 농기를 비스듬히 숙여 인사를 해야 한다. 이는 비단 일을 하러 가거나 끝나고 돌아오는 도중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두레 일을 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이다. 큰 들을 여러 마을에서 나누어 농사를 짓는 경우에 일을 하는 도중에 이동을 할 때에도 다른 마을의 두레와 마주치기가 쉽다. 이럴 때에도 논 한쪽에 세워둔 농기에 인사를 하거나 이동 중인 어른마을 기에 인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서로 세력이 비슷한 마을 사이에서는 서로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 두레싸움이 발생한다.

청남면 인양리에서는 나무 잘 타는 사람이 상대의 '깃목'을 빼앗으면 이기는 것으로 두레싸움이 행해져 왔다. 깃목은 농기 꼭대기에 달린 꿩털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꺾는다는 것은 상대의 목을 베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때문에 서로 깃목을 빼앗기 위해 농기를 서로 부딪쳐 아래로 내리게 하거나 사람이 올라가 빼앗아 오기도 한다. 깃목을 빼앗긴 마을에서는 기를 마을로 가지고 가지 못하고 버리고 가야 한다. 이 마을에서는 깃목을 빼앗는 것 외에도 일꾼들이 서로 몸싸움을 할 때도 있고, 농악을 쳐서 승배를 결정

하기도 한다.

정산면 남천리의 경우 이웃 마을의 두레와 마주쳤을 때 풍물로 자진마춤으로 치면서 상대에게 '기문 열어 달라'고 요구한다. 이 때 기문을 열어주는 것은 기를 옆으로 비켜달라는 것으로 힘이 약함을 뜻한다. 따라서 어른 마을일 경우는 기문을 열어주지만 서로 세력이 비슷한 마을끼리는 서로 기문을 열라며 으름장을 놓게 되고, 이 때 상대방의 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여 농기에 걸린 3가닥의 깃줄을 끊는 것을 신호로 싸움이 벌어진다.

싸움은 호미나 돌, 나무 등을 들고 상대편의 두레패와 패싸움을 하게 된다. 어느 한 마을이 도망을 가거나 상대편 농기 꼭대기에 꽂혀 있는 꿩 깃털 장식을 빼앗을 때까지 싸움은 계속된다. 농기가 부러지거나 땅에 넘어갔을 때 혹은 농기를 빼앗거나 빼앗은 경우에 싸움은 끝이 난다. 상대방의 농기에 해를 가하고 농기를 지킨 마을이 승리하게 되면 이후에 어른 마을로 인정받게 된다. 또는 두레싸움에 이긴 마을을 '형두레', 진 마을을 '아우두레'라고 부르기도 한다.

두레싸움은 장정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번 싸움

이 벌어지면 다치는 일이 다반사이고 심지어 심하게 앓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두레싸움은 마을을 대표한 싸움이기 때문에 다친다고 해서 때린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고 묵인한 채 넘어간다.

단지 어른 마을에 인사를 하지 않은 경우 외에도 힘이 센 두레패가 힘이 약한 두레패에게 일부러 싸움을 걸기도 한다. 일을 하다가도 다른 마을 두레패가 논을 매러 온다고 하면 일부러 기를 앞세우고 그 앞으로 지나가거나 시비를 거는 것이다. 그래서 힘이 약한 두레패는 힘이 센 두레패를 피해 다니기 위해 길을 돌아서 가기도 한다. 두레싸움은 일종의 세력싸움이자 기싸움이다. 두레싸움에서 진 두레패는 이긴 두레패에게 항상 예의를 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레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다.

(3) 두레놀이(두레 먹기)

음력 7월 15일 백중 무렵에는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와 백가지 곡식의 씨앗이 갖추어졌다는 것에서 백

중이란 말이 유래되었다. 도가(道家)에서는 1월 15일은 상원(上元), 10월 15일을 하원(下元)이라 하고 이와 함께 백중을 중원(中元)이라 하여 초제(醮祭)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다. 백중은 망혼일이라고도 하는데 돌아가신 망혼을 위로하기 위해 술과 음식, 과일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불제자 목련(目蓮)이 그 어머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7월 15일에 오미백과(五味百果)를 공양했다는 고사에 따라 우란분회(盂蘭盆會)를 열어 공양을 하는 풍속이 있었다. 우란분회의 풍속은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나 고려 때까지만 해도 일반인이 참여하는 큰 행사였으나 조선시대 이후로 사찰에서만 행해지고 민간에서는 거의 소멸되었다.

민간의 가정에서는 익은 과일을 따서 조상의 사당에 바친 후 나누어 먹는 천신 차례를 지냈으며, 옛날에는 종묘(宗廟)에 이른 벼를 베어 천신을 하는 일도 있었다. 농가에서는 백중날이 되면 머슴을 하루 쉬게 하고 돈을 준다. 백중 무렵은 김매기도 끝나고 한 해의 큰 농사일은 모두 마쳐 추수철만 기다리면 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일꾼들을 쉬게 하고 농사 내내 사

용했던 호미를 씻어 말리는 '호미씻이'를 행했다. 또한 머슴들은 주인집에서 수고비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장에 가서 술과 음식을 사먹기도 하고 물건도 산다. 그래서 이 날에는 특별히 '백중장'이 열리기도 한다. 장 구경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농악을 치면서 하루를 신명나게 즐기기도 하고 씨름판을 벌이는 등 잔치를 벌인다. 또한 그 해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머슴을 뽑아 소에 태워 마을을 돌며 위로하며 놀기도 한다. 이처럼 백중은 김매기가 모두 끝난 후 농민들이 휴식을 가지는 시기로 마을의 두레패의 활동도 이 때 끝나게 된다.

청양지역에서는 두레가 끝난 후 마을 전체가 노는 것을 '두레 먹기'라고 하는데, 농사일에 시달렸던 두레 일꾼들이 하루를 쉬면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즐겁게 하루를 놀면서 공동의 노동 수행에 대한 일의 마무리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다. 청양지역에서는 이러한 풍속이 칠월 칠석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는데, 비봉면 강정리의 경우 백로 때 두레 먹기가 행해진다. 두레 먹기 외에도 마을에 따라서 천내리는 '호미씻이', 인양리는 '먹두레', 천내리는 '두레 놀기' 등으

로 부르기도 한다. '호미씻이'는 농사일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호미를 넣어두기 위해 묻은 흙을 모두 씻어낸다는 의미이고, '먹두레'는 먹는 두레라는 뜻이며, 두레가 끝나고 노는 날이라고 해서 '두레 놀기'라고도 한다. 청양지역에서 나타나는 두레 먹기의 독특한 점은 일반적으로 두레의 해산과 이에 따른 풍속은 백중에 행해지는데 반해 청양지역에서는 칠월 칠석에 행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칠석은 두레패의 일꾼들이 노는 날이고 백중은 부잣집의 머슴들이 노는 날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본래 칠석(七夕)은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에서 만나는 날로 이에 대한 '견우직녀설화'가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다. 또한 칠석날은 별자리를 각별히 생각하는 날이어서 수명신(壽命神)으로 알려진 북두칠성에게 수명장수를 기원한다. 이 날 각 가정에서는 주부가 밀전병과 햇과일 등 제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거나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무병장수와 가내의 평안을 빈다. 가정에 따라서는 무당을 찾아가 칠성맞이 굿을 하기도 하고, 또 밭작물의 풍작을 위해 밭에 나가서 밭제를 지내기도 한다. 청양지역에서

는 칠석날 '두레 먹기' 풍속이 행해지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칠석날 새벽에는 밀전병과 각종 제물을 차리고 고사를 지내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기도 한다. 대치면 장곡리의 경우 칠석날이면 새벽에 인근 장곡사에 가서 불공으로 드리고 각자의 집에서 고사를 지내고 난 후 점심 무렵에 두레회의가 열린다. 정산면 와촌리의 경우도 칠석날에 정자나무에 칠성제를 지내는데, 아침 일찍 칠성제를 지내고 두레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품값과 논 값을 계산하고 결산해 마을 공동기금에 넣고 두레가 끝났음을 알린다.

두레 회의가 끝나면 마을 기금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주로 돼지나 닭을 잡아서 잔치를 연다. 마을 기금이 많이 모인 때에는 소를 잡기도 한다. 여름이기 때문에 개를 잡을 수도 있지만 칠석은 고사를 지내는 깨끗한 날이기 때문에 개는 잡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긴다. 또한 마을의 부잣집에서는 두레를 돕는다는 의미로 두레 먹기 잔치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하는데, 이를 '턱내기'라고 한다. 턱내기는 두레 먹기 때뿐만 아니라 두레 일을 하는 도중에 점심식사나 술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보통 두레 먹기는 각 마을별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잔치가 벌어졌을 때 다른 마을에서 놀러오기도 하지만 각 마을마다 그 해 두레를 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잔치를 벌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대치면 장곡리의 경우 인근 마을과 두레 먹기를 함께 행한다. 이곳에서는 두레 먹기 때 풍물대회가 열리는데, 인근의 개곡리와 구치리, 광금리의 두레패가 모두 참여한다. 장곡리에는 입구에 큰 정자나무가 있고, 그 주변으로 마당이 넓게 있어 풍물대회를 하기도 적당하고 인근 두레패 중에서는 장곡리의 두레패가 가장 크고 마을 규모도 크기 때문에 장곡리가 다른 마을을 초대하는 형식으로 풍물대회가 열린다. 인근 마을에서 그 해 두레패가 결성되지 않아도 따로 풍물패만 결성해 장곡리의 풍물대회에 참여하며, 또한 장곡리에서는 마을기금으로 모든 음식과 술, 떡 등을 준비한다. 대회라고 해서 상품을 두고 등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돌아가면서 풍물을 치고 술과 음식을 먹으며 노는 것이다.

이처럼 두레 먹기는 마을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참석하는 마을잔치로 한 해의 농사를 지은 일꾼들의 노고에 대한 휴식의 의미뿐만 아니라 익어 가는 벼이삭을 보며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다.

Ⅱ. 교환노동으로써의 품앗이와 고지



1. 품앗이

품앗이는 서로 일을 거들어 주어 품을 지고 갚는 교환노동이다. '품아이'·'품바꾸이' 등으로 부르는 곳도 있지만 청양에서는 '품앗이'로 부르고 있다.

품앗이의 어원적인 의미는 노동력을 뜻하는 '품'과 빌린다는 의미인 '앗이[受]'가 결합된 말로 품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품 갚기'의 의미도 내포된 호혜적 증답관계(贈答關係)를 의미 한다[11]. 품앗이는 노동력을 산정하고 이를 빌리고 갚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의미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노동력을 이해 타산적으로 보지 않고 모두 대등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노동력을 산정하는 '고지(謙只)'나 머슴의 '새경'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노동력을 주고받음에

---

11)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390쪽.

있어서 화폐나 금전적인 수단의 이동은 배재되고 오로지 노동력으로만 교환이 이루어진다. 즉 인간의 노동력을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이 품앗이를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가치 관념이 되는 것이다.

두레가 촌락공동체 단위의 집단적 공동노동이라면, 품앗이는 개인적 교분으로 맺어진 촌락 내의 소집단 성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환노동이다. 품앗이는 친지간에 짜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렇게 품앗이를 짜는 개인이나 소집단 상호간에는 그 선행조건으로 상호부조의식 또는 의리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와 때로는 처지가 서로 비슷해야 품앗이를 짤 수 있다는 믿음과 관념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품앗이는 시기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또 작업의 종류에도 관계없이 농가에서 자가의 힘만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한 작업을 할 때 수시로 조직된다. 품앗이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동일한 가치로 이해되기 때문에 인력의 교환은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특히 농가에서 노동력이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농사일에서 품앗이가 가장 활발하게 행해진다. 청양지역에서 농사일은 크게 논농사와 밭농사로 나누어지는데, 이 둘은 노동

의 시기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품앗이의 시기와 규모도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보통 논농사는 남자들이 담당하고, 밭농사는 여성들이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품앗이가 남과 여로 나뉘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서로 노동력을 주고받는 관행은 혼례나 상례 등 집안의 애경사(哀慶事)에서도 나타난다. 마을 한 성원이 애경사를 겪게 되면 마을 성원들이 와서 일손을 돕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집에서 한 두 번의 애경사는 경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력이 교환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품앗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이는 특정한 사람들끼리 노동력을 1:1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부족한 곳에 일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1) 품앗이의 결성과 운영

① 결성 기준과 방식

품앗이는 친분관계를 통해 결성되는 개인적인 노동교환이기 때문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데 공통적으로 품앗이를 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서로 간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노동력을 교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품앗이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신뢰감은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품앗이를 짠 사람들끼리는 힘든 노동의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함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도 서로 연령이 비슷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 일가친척들 사이에서 많이 행해진다.

노동능력 또한 품앗이를 결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물론 마을 구성원이 한정되어 있고 한 마을 사람들끼리 노동능력을 평가해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인정(人情)을 거스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심리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과 품앗이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로 능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품앗이를 구성하고, 또 그렇게 해야 노동력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농토의 규모도 품앗이 조직에 영향을 주는데 농토의 규모가 노동의 정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토의 규모는 부차적인 요소이고, 대부분 품앗이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마음이 잘 맞느냐의 문제이다.

품앗이는 개인적인 노동교환의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 품앗이가 결성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가족의 성원이 많거나 친척이 많은 경우, 집안에 머슴이 많이 경우 등 일손이 부족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품앗이를 행하는 횟수는 줄어든다. 또한 다른 집에서 품앗이에서 품을 갚아야 하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몸이 아프거나 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면 품앗이 대신 일꾼을 사서 쓴다. 일꾼의 품값은 남자는 하루 한 되, 여자는 반 되이다.

② 품앗이 노동력의 교환 방식

품앗이는 노동력을 교환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수나 노동력의 정도보다는 일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따진다. 이는 노동력의 가치와 질을 모두 동일하게 본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있기 때문으로 금전적인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같은 일로 되

갚을 필요도 없고, 품을 갚아야 할 날짜도 정해져 있지는 않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식구 중 누구나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꾼을 사서 대신 품앗이 일꾼으로 보내기도 한다. 즉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품을 얻은 날짜만큼 품을 되팔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농사의 과정에서 김매기나 모내기, 추수 등에 행해지는 품앗이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서로 암묵적으로 정해지기도 하고, 서로 같은 일로 품을 갚게 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모든 인간의 노동력을 동일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품앗이의 가장 큰 특징이지만 보통 여성의 노동력은 남성 노동력의 절반 정도이고, 소년의 노동력도 어른 남성의 절반으로 평가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성별이나 나이 차가 품앗이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품을 빌릴 때는 장정의 품을 빌렸을 때 품을 갚을 때도 장정의 노동력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성이나 소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것도 인정된다.

품앗이는 임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품을 얻을 때 반드시 식사를 제공하고 대부분 술이나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도 함께 제공한다. 품앗이꾼[12]은 자신의 집에서 아침을 먹고 오는데, 품을 얻은 집에서는 아침 새젓거리(혹은 젓거리)와 점심, 저녁 새젓거리(혹은 젓거리)를 준비해 제공한다. 여기에서 '새젓거리' 혹은 '젓거리'라고 하는 것은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수와 술 등으로 간단히 차려지는 음식이다. 집안에 따라서는 품앗이를 온 사람들의 아침도 챙겨주기도 하고, 품을 산 집의 형편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받은 수준만큼 똑같이 보답해야할 필요는 없다.

③ 품 계산하기

품앗이는 개인적인 친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매번 비슷한 가구가 서로 품앗이를 조직한다. 특히 봄부터 가을 타작이 끝날 때까지 한 해의 농사 과정에서 품앗이는 대개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며, 가을에 서로 품앗이를 해준 날짜를 따져본다. 청남면

---

12) 품앗이로 일을 하러 온 사람을 '품앗이꾼'이라고 부른다.

내직리에서는 가을에 품앗이를 함께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품앗이 날짜를 따지는 것을 '품 남은 거 따지자'고 부른다. 서로 품앗이를 하다 보면 몸이 아프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크기가 작아서 어떤 집은 하루거리로 일을 마칠 수 있지만 며칠씩 걸리는 집도 있다. 그 과정에서 품앗이로 일을 해 준 날짜가 각 가구마다 다른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품앗이 날짜가 맞지 않는 것을 '날 밀린다'고 한다. 이렇게 날이 밀리게 되면 품을 주고받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 해 농사가 끝난 가을에 품앗이로 일한 날짜를 서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 때 품앗이를 적게 나온 집은 품앗이를 더 많이 나온 집에 모자란 날짜만큼 품값을 물어주거나 날짜만큼 일을 해 주는데, 농사철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품값으로 변상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장부 등에 서로 일한 날짜를 표시하거나 계산해 놓지는 않는데, 대개 하루 이틀 정도만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청남면 내직리에서는 농사일을 품앗이로 할 때 서

로 땅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값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와 B가 서로 품앗이를 하는데, A가 10마지기를 소유하고 B가 15마지기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일을 해야 할 농토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진 B가 5마기지 만큼 일한 양을 A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B가 가진 논이 넓어 A가 하루 더 일을 했다면 품값을 주어야 하고 똑같이 하루나 이틀에 일이 끝났다면 B가 A에게 5마지기 만큼 돈을 더 주는데, 이런 경우 한 마지기당 일정 금액을 책정해 계산한다.

(2) 품앗이와 노동

① 논농사에서의 품앗이

논농사는 집안의 생계수단이자 생산된 쌀은 곧 재산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논에서의 작업은 노동량도 많고 노동의 강도도 세기 때문에 주로 남성들이 담당해 왔다. 따라서 논농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품앗이도 자연히 남성 중심으로 구

성될 수밖에 없었다. 논농사에서의 품앗이는 농사의 논갈이, 모찌기, 모내기, 김매기, 추수 등 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혼자서 하기 힘든 작업이나 여러 명이 함께 할 때 효율적인 작업들에서 품앗이나 주로 나타난다.

• 논갈이 때의 품앗이

논갈이는 농토를 갈아엎는 작업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품앗이보다는 소를 빌리는 소 품앗이가 주로 행해졌다. 소를 빌리는 관행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한다.

•모찌기와 모내기 때의 품앗이

모찌기는 모내기를 위해 모판에 키워온 모를 뽑아내는 작업으로 모내기를 위한 선행 작업이다. 따라서 모찌기와 모내기는 하루에 이루어지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두레가 구성되기도 하지만[13] 대개 품앗이로 모찌기와 모내기를 한다. 모찌기와 모내기 때는 비교적

---

13) 비봉면 강정리 갈마마을의 경우 모내기 때부터 두레패가 결성된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가구정도가 구성된다. 때에 따라서는 마을 전체가 품앗이로 돌아가면서 모를 내기도 한다. 모내기에서의 품앗이는 줄모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 변화가 생겼다. 줄모를 내기 전에는 크게 중요시 하지 않았던 일꾼의 모 심는 속도가 줄모를 내기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14]. 줄모를 내기 전에는 줄을 따라 1자로 모를 심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논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모를 내는 모양이 달랐기 때문에 일을 하는 속도가 제각기 달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먼저 모를 심은 사람은 일을 끝내고 기다리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줄모를 내면서 줄을 따라 일꾼들이 순서에 맞추어 모를

14) 줄모는 일제 강점기 때 토지의 경지정리작업과 함께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이전에는 산식이라 해서 논의 형태에 따라 모 심는 방법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식량증대와 일의 효율성을 위해 줄모를 보급시켰고, 대형을 이루어 모를 심는 방법은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전의 산식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대형을 이루며 같은 속도로 모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논에서 1자 대형으로 모를 내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모내기 때 못줄을 끊고 일을 해서 면사무소 직원과 싸움이 나기도 했고, 모내기철이면 못줄을 사용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면 서기관이 감찰을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심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속도가 늦어지면 다른 일꾼들에게도 방해가 되고, 전체적으로 일이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김매기 때의 품앗이

김매기는 대개 두레를 구성해서 이루어지는데, 두레가 조직되지 않는 해에는 품앗이를 이용한다. 두레가 행해질 만큼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고, 또한 아시매기-두 벌매기-만물매기의 연속된 과정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한 품앗이이고, 그래서 열 가구까지 품앗이가 조직되기도 한다. 이 때 다섯 가구씩 결성된 두 개의 품앗이 가구들이 합쳐서 열 가구로 품앗이를 하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 품앗이를 결성하기도 한다.

•추수와 바심 때의 품앗이

벼 이삭이 익으면 추수를 하는데, 이때도 품앗이가 행해진다. 벼를 베는 작업에서부터 볏단을 옮기고 바심(타작)을 하는 일련의 작업이 이 시기에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과정은 품앗이가 이용된다. 벼를 베면 일정량씩 묶어서 벳토메를 만들어 논둑에 세워

자연바람으로 말린다. 그리고 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마당에 개상(절구통)을 놓고 볏단을 치며 바심을 한다. 많을 때는 열 가구까지도 함께 품앗이를 하는데, 열 가구가 하면 하루에 40석까지도 수확을 할 수 있었다.

•퇴비를 만들기 위한 품앗이

김매기가 끝나면 중요한 농사의 과정은 끝을 맺게 된다. 그런데 백로가 지나고 벼를 베기 전에 이듬해 퇴비로 쓰기 위해서 논에 자운영 씨를 뿌려둔다. 이 때 자운영을 논에 뿌려 놓으면 가을에 싹이 나고 이듬해 봄이면 크게 자라 꽃이 피는데, 이 때 자운영을 베어서 논에 뿌리고 그 땅을 간다. 이렇게 하면 자운영이 땅 속에서 썩어 퇴비가 되는 것이다. 자운영의 씨를 뿌릴 때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품앗이를 하지 않지만 자운영을 벨 때는 여러 명이 함께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게 일을 마칠 수 있어 품앗이를 이용한다.

② 밭농사에서의 품앗이

논농사가 남성중심의 노동이라면 밭농사는 여성중

심의 노동이었다. 밭에서는 주로 보리를 생산했고, 그 외에 집에서 소비할 콩과 같은 잡곡과 채소 등이 밭에서 생산되었다. 여성들을 중심으로 농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히 품앗이도 여성들끼리 행해졌다. 논농사와 마찬가지로 농사의 각 과정에서 품앗이가 행해지지만 주로 바쁜 시기인 음력 2·3월, 하지·망종 때이다. 음력 2~3월은 보리밭을 매는 시기이고, 하지와 망종 때에는 콩과 여러 밭작물을 심고 고추를 따야 하는 시기로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논농사에서 김매기 때가 가장 바쁘고 일손이 많이 가는 일로 품앗이가 크게 행해지듯 밭농사에서도 밭 매는 시기가 가장 품앗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양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삼농사를 행했는데 특히 장평면 낙지리에서는 다 자란 삼을 삶을 때에도 품앗이가 행해졌다. 낙지리에서 삼 삶기(삼 찌기)는 양력으로 8월 중순 무렵에 시작되는데, 삼 삶기는 삼실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중요한 과정이다. 삼실은 삼의 껍질로 만들기 때문에 다 자란 삼에서 껍질을 벗겨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삶을 삶

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삼을 베어서 삶아 내는데, 솥에 삶지 않고 수증기를 이용한다. 먼저 삼을 세울 수 있도록 땅을 깊이 파고 아래에 불을 피운 뒤 그 위에 돌을 얹어 뜨겁게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삼을 묶어서 세우고 물을 뿌리는데, 이렇게 하면 뜨거운 돌멩이에 물이 닿아 수증기가 되고 이 뜨거운 수증기로 삼이 삶아진다. 이 작업은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삼농사를 짓는 집들이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한다. 자신의 삼은 묶어서 끈에 미리 표시를 해 두어 섞이지 않도록 한다. 삼을 삶는 과정뿐만 아니라 길쌈을 할 때에도 삼 농사 때와 같은 집들이 서로 품앗이를 하기도 한다.

③ 가사노동에서의 품앗이

농사일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가사노동 과정에서도 품앗이가 행해진다. 특히 집안에 잔치가 있거나 김장을 해야 하는 경우 갑자기 많은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앗이가 많이 행해진다. 이때는 그릇도 서로 빌려다가 사용하는데, 이를 정산면 천장리에서는 '그릇 품앗이'라 부른다.

이처럼 품앗이는 농사의 과정뿐만 아니라 전통사회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결성되고 행해져왔다. 오늘날에도 품앗이가 조직되고는 있으나 그 양상은 많이 달라졌다. 근대화되는 농촌사회에서 환금의식(換金意識)이 발달했기 때문에 품앗이의 바탕에 깔린 사람의 노동력에 대한 평등의식은 보다 합리적인 타산성의 작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도 품앗이보다는 임금을 주고 일꾼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 고지

고지(雇只)란 궁핍한 농민이 춘궁기에 노동의 대가로 쌀을 미리 받아 생활을 한 뒤 농번기에 노동력으로 갚은 것을 말한다.[15] 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 논 한 마지기를 경작하는 대신 그에 대한 노동임금을 미리 받아오는 것이다. 노동력과 임금이 교환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임금을 먼저 가져가고 그 후에 노동력으로 되갚는다는 점에서 신뢰감 없이는 성립되기 힘들다.

노동 임금과 그에 대한 노동의 정도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사이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고지로 계약하고 임금으로 쌀을 먼저 내어 주는데, 이를 '고지쌀'이라 하고, 임금

---

15)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394쪽.

을 제공한 사람은 주인, 고지쌀을 빌린 사람은 '고지꾼'이 된다. 정산면 천장리에서는 고지 빌리는 것을 '고지쌀 판다'고 부른다. 품앗이가 노동력이 1:1의 등가로 교환되는 것과 달리 고지는 고지쌀에 대한 노동력의 갚음이기 때문에 주인의 요구에 따라 더 많은 노동력이 고지꾼에게 부과되기도 하고 주인에 대한 노동력의 종속도 품앗이보다 강하다. 그래서 일을 하러 와야 하는 시간도 품앗이꾼은 자신의 집에서 아침을 먹고 오지만 고지꾼은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해야 한다. 대신 주인집에서는 아침을 제공한다.

고지의 종류는 크게 한 해 농사기간 내내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고지와 일정한 시기까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고지가 있다. 물론 한 해 농사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고지가 그렇지 않은 고지보다 더 많은 임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한 해 농사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는 고지는 '잔고지'라 하는데, 정산면 천장리에서는 '비싼고지'라고 부른다. 이는 논을 갈기 시작할 때부터 모내기를 하고 김을 매고 추수한 뒤 바심(타작) 때까지 주인집이 요구할 때마다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한 해 동안 길게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잔고리가 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고지 쌀이 비싸다는 의미로 비싼 고지라 부르는 것이다.

반면 특정한 시기까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고지도 있는데, 청양에서는 '심는 고지'라고 한다. 정산면 천장리에서는 비싼 고지와 반대되는 의미로 '싼 고지'라 부른다. 심을 고지는 모를 심을 때 까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청남면 천내리의 경우 고지에는 '심는 고지'와 '매는 고지', '잔고지'로 세 종류가 있는데, 매는 고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형태로 김매기를 할 때까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심는 고지는 보통 1말을 빌릴 때 하는 고지이고, 2말을 빌리면 잔고지로 계약을 하며, 1말에서 2말 사이를 빌릴 때 매는 고지로 계약을 한다.

반면 청양읍 군량리의 경우 고지를 '잔고지'와 '일고지'로 나눈다. '일고지'는 고지쌀을 받은 뒤 주인집의 농토를 소작과 비슷하게 받아서 한해의 농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웃께'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인집의 농토를 불하받아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소작과 유사하지만 농토에서 생산된 쌀에 대한 소유권

이 전혀 없고, 미리 받은 고지쌀에 대한 대가로 농사를 짓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고지를 할 때는 형편이 비슷한 몇몇 사람이 함께 하거나 주인이 같은 농토를 여러 명에게 고지로 주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고지꾼도 자신의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일고지를 받으면 이중으로 농사를 지어 고지꾼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한 주인은 고지로 준 토지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마지기에 많게는 6명까지도 고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손이 빠르고 노동력이 좋은 사람은 여섯 사람분량의 고지를 혼자 받아서 농토를 경작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주인집에 노동력이 종속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지로 불하받은 땅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농사보다 우선으로 하다 보니 결국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생산된 식량은 줄고, 다시 또 고지쌀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도 했다.

고지를 빌리는 것은 대개 집안의 남자들이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집안의 곡식은 여자들이 맡아서 관리하지만 고지를 빌려 오거나 빌려 주는 것은 남자들이

주로 맡는다. 왜냐하면 고지는 곡식을 빌리고 대신 일을 해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빌려줄 때는 빌리는 사람이 일을 성실하게 할 사람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지를 빌리러 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고지쌀은 게으르거나 노름을 하지는 않는지를 잘 살펴서 일을 잘 할 사람에게만 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쌀만 빌려가서 일을 하러 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3. 소빌리기

소는 농사를 짓는데 있어 오래 전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삼국사기』 지증왕조에 보면 지증왕 3년(502년)에 소를 이용해 논밭을 갈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 유리왕조에 보면 쟁기 등의 농기구를 제작해 논밭을 갈았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의 힘을 이용한 경작도구인 도끼·괭이·가래·낫과는 달리 쟁기는 축력(畜力)을 이용하는 경작도구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소를 이용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지증왕 때의 기록보다는 이전 시기부터 소가 농사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농사에 소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인력(人力)에 의존해 오던 원시적 농업기술은 획기적인 전환기를 겪게 된다. 가축의 힘을 이용하게 되면서 사람의 일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능률적이면서도 보다 넓은 면적의

농토를 경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땅을 깊게 가는 심경(深耕)이 가능해지면서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통기성을 높여 토질을 개선하는 등 농사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소는 농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소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농촌에서 그 중요성이 커졌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소를 생구(生口)라고 부르며 사람으로 대접하고 한 가족으로 인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렇듯 소는 농사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든 집에서 소를 소유할 수는 없었다. 소의 가격이 매우 비쌌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는 농사일을 맡는 역할뿐만 아니라 집안의 재산이기도 했고,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재산이 부유한 집이나 여러 마리 가지고 있고, 소가 있는 일반 농가에서는 한, 두 마리 키우는 정도였다. 한 마을에서 소를 가진 집은 소수에 불과했고, 소가 없는 집에서는 소를 빌려다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소를 농사 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길들이는 작업이 필요했고, 소를 여럿 키운다고 해도 실제로 농사에 이용할



〈사진 9〉 소를 이용해 논을 가는 모습

수 있는 소는 한정적이었다.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 제보자는 젊은 시절 소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소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황인섭 제보자가 소를 길들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3살이 되기 전에 소를 길들여야 하는데, 그 후에는 이미 소가 다 커버려서 잘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소이든 처음에 바로 쟁기를 달 수 없다. 쟁

기를 불편해 할 뿐만 아니라 쟁기에 돌이 걸려도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끙게'라는 넓은 나무판을 쟁기 대신 소에 걸어 길들인다. 끙게 위에는 돌을 올려서 연습을 시키는데, 끙게가 뒤집어지지 않게 하고 쟁기질을 할 때의 무게감을 익히게 하기 위함이다. 끙게를 이용해 어느 정도 길이 들여지면 긁정이를 연결해 농사일을 가르친다. 이 때 한 사람이 소코뚜레를 붙잡고 긁정이를 들고 있는 사람의 구령에 맞추어 방향을 이끈다. 방향감각과 사람의 구령을 익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익히게 되면 앞에서 소를 잡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소가 처음 일을 할 때는 긁정이나 쟁기에 돌이 걸려도 멈추지 않고 무작정 가기 때문에 쟁기 날을 여려 개 망가뜨리게 된다. 하지만 잘 길들여진 소는 쟁기 날에 돌이나 이물질이 살짝만 걸려도 금방 알아차리고 멈추게 된다.

이처럼 길들여진 소는 본격적으로 농사일에 사용된다. 소는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땅을 갈고 편평하게 하는 주로 이용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모든 집에서 소를 소유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웃

끼리 서로 소를 빌리고 빌려주는 관행이 행해졌다.

소가 없는 집에서 소를 하루 빌리면 날짜로는 이틀, 사람으로는 2명의 노동력으로 대신 갚았다. 청남면 천내리, 정산면 천장리의 경우 소를 빌리면 보통 일꾼 3명 몫으로 갚았으나 항상 그렇지는 않고 그 때 상황마다 다르게 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소를 빌렸을 때 화폐가 아닌 노동력으로 대가가 지불되는 까닭은 농가에서 소를 빌리는 것은 소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노동력이 제공되는 것이다.

소를 빌리는 시기는 주로 봄에 집중된다. 소는 논농사에서 주로 이용되며, 특히 논을 갈아엎기 위해 쟁기질을 하고 이를 고르는 써레질을 할 때 반드시 필요기 때문이다. 그런데 봄은 상품교환의 수단이자 화폐 기능을 담당했던 쌀이 풍족하지 않은 때이다. 그래서 소를 빌려준 대가를 쌀로 받고 싶어도 즉각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때문에 쌀 대신 노동력으로 대가를 받는 것이 소를 빌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훨씬 효율적이고 이득이었던 것이다[16].

소를 빌려준 대가로 제공되는 노동력은 날짜로 계산하면 2일이나 3일, 사람 수로 계산하면 2명이나 3명이 된다. 이러한 계산법은 표면적으로는 날짜로 세는 것과 사람 수로 세는 것의 노동량이 다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 노동력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하루 동안 장정 한 사람이 일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 한 하루, 이틀의 노동력이나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한 한 명, 두 명의 노동력은 같은 노동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소를 빌렸을 때 이틀 동안 일을 해 주는 것은 장정 두 명이 하루 동안 일하는 노동량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를 빌린 대가를 노동력으로 갚을 때에도 하루에 두 명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나 한 사람이 이틀 동안 일을 하러 오는 것이나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소를 빌린 대가로 제공해야 하는 노동력은 마을마다 다른데, 노동력에 대한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도 소를 빌리는 당시의 시세에 따라 노동의 날짜나 인원

---

16) 홍재성(남, 72세, 비봉면 강정리) 제보.

수가 변동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농소를 가지고 있는 집이 그렇지 않은 집에 비해 그 수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적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시기에 한정된 숫자의 소를 빌려야 하다 보니 자연히 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소를 빌림으로써 갚아야 하는 노동량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소가 전염병으로 갑자기 수가 줄어들었거나 농소를 가진 사람이 소를 판 경우 등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히 소를 빌리는 것은 마을 내 이웃 간의 인정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노동량을 늘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소를 빌려갈 때 쟁기나 써레 등 농사에 필요한 도구는 함께 빌려주는데, 소를 부릴 줄 알고 쟁기질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무관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소를 부릴 사람을 한 명 더 구해야 한다. 소 주인이 함께 가서 부리기도 하고, 마을 안에서 유달리 소를 잘 부리는 사람을 특별히 불러서 쓰는데, 이 사람을 '선일꾼' 또는 '쟁기질 일꾼'이라고 부른다. 소를 부리는 사람을 따로 부르는 경우에는 하루치 품삯을 주거나 품앗이 형태로 일을 해 준다. 그런데 소 주인이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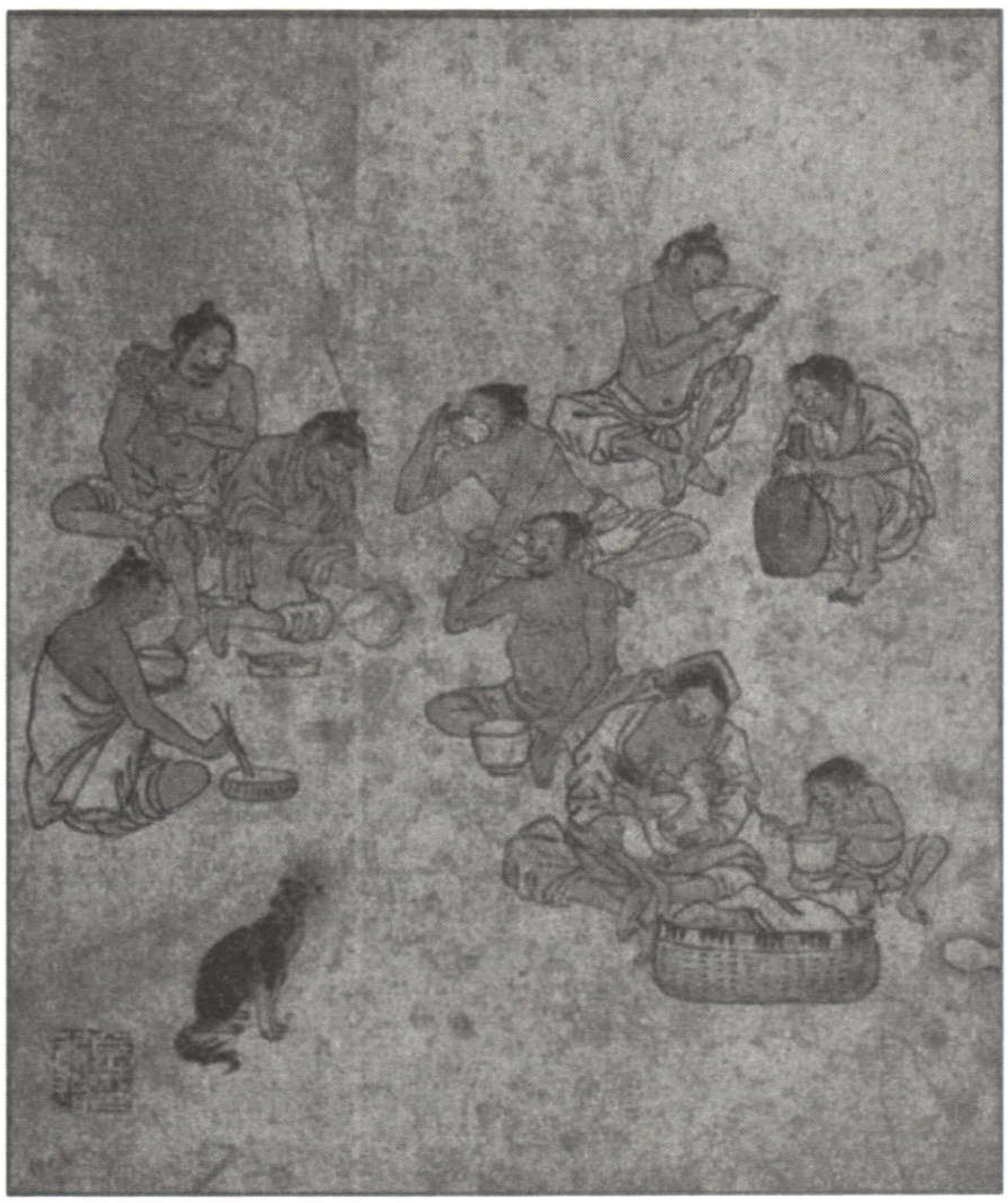
소를 부리러 나올 경우 소를 빌린 사람은 소의 노동력과 소 주인인 사람의 노동력을 합쳐 하루나 이틀의 노동력을 추가로 더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일을 해 주어야 하는 날짜는 미리 소 주인과 상의해 결정한다.

정산면 천장리에서는 소를 빌리는 경우 소를 빌린 사람은 빌려가기로 약속한 날의 하루 전에 쇠죽먹이로 겨와 콩을 소 주인집에 가져다주는데, 잘 가지고 오는 집은 보리쌀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 또 소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바닥에 깔 깨끗한 짚과 새로 베어 온 풀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소 주인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다음날 소가 자신의 농토에서 일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이루어진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농사에서 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70년대 말까지는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산간지역의 천수답에서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경지정리와 저수지의 축조를 통해 천수답에서도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농소를 사육하

는 농가가 사라지게 되었고, 자연히 서로 소를 빌리는 풍속은 사라지게 되었다.

Ⅲ. 청양지역 공동노동의 특징



우리나라 농촌마을에는 주민들 사이에 서로 농사일이나 집안일, 마을일 등을 상호 협력하여 노동력을 교환하는 관행이 행해지는데, 황두, 두레, 품앗이, 고지 등이 그것이다.

황두는 고대의 향도(香徒와 鄕徒) 동일하며, 그 기원은 씨족사회의 공동소유의 경작지를 마을주민이 함께 일하는 공동노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황두의 기능은 마을의 한 집에서 상을 당했을 때, 혹은 파종을 하거나 김매기와 같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도와주는 관행으로 북한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즉 남한 지역의 두레와 대비되는 공동노동관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두레가 김매기와 모내기에 주로 동원이 되는 것과 달리 황두는 모내기를 제외한 김매기나 경조사에서 노동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황두가 모내기에 동원되지 않는 것은 북쪽에서는 이앙법이 발달되지 않았고, 건조한 농토에 파종하는 건삶이 방식이 전승되어왔기 때문에 모내기 방식에서와 같이 집약된 노동형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품앗이는 공동노동의 관행으로 근린조직(近隣組織)

이나 이웃 간에 소규모로 구성되어 노동을 서로 교환하는 조직이다. 농사일뿐만이 아니라 경조사에도 품앗이는 구성원이 서로 상부상조하기 때문에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에 노동력을 교환한다. 몇몇 가구가 서로 모여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어떤 한 집을 도와주면 다음에는 당연히 다른 집의 일손이 필요할 때에 도와준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 숙련된 정도가 비슷한 이웃끼리 품앗이를 구성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품앗이로 도움을 받았어도 보답을 못한 경우에는 곡물이나 화폐로 보상하기도 한다.

고지는 농토를 많이 소유한 농가와 농토가 작은 빈농(貧農)과의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난한 농가는 춘궁기(春窮期)에 부유한 농가로부터 식량을 제공받은 후 농번기(農繁期)에 노동력으로 보상하거나 경작지 일부를 대신 경작해준다. 따라서 고지는 개인과 개인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과 식량의 교환관계인 것이다. 즉 두레와 품앗이가 공동노동교환의 관행이라면, 고지는 개인노동교환이라 할 수 있다.

청양군은 한 가운데 칠갑산이 자리 잡고 있어서, 논보다는 밭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다. 청남면과 비봉면에서 화성면에 이르는 청양군의 동북지역(홍성군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하면 넓은 평원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벼농사에 대규모로 동원되는 두레보다는 소규모의 품앗이가 발달되어 있다.

두레를 지휘 감독하는 총책임자를 좌상(座上)이라 한다. 정산면 천장리에서는 좌상이 김매기나 모내기를 할 농토의 순서를 정하며 살포를 들고 지휘한다고 한다. 살포는 관계수로로 물길을 따라 논에 물길을 막거나 열어주는 도구로 삽의 일종이다. 농부가 논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물길을 조절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루가 길다는 특징이 있다. 좌상이 살포를 가지고 지휘하는 것은 물길을 조절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좌상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좌상은 현재의 수리조합장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강원도와 함경도에는 상여계가 있다. 상여계는 황두와 마찬가지로 공동노동조직으로서 구성원 중에 경조사를 겪게 되면 상호협력하며 일을 돕고 김매기와

같은 농사일에 공동으로 참여 한다. 일반적으로 두레는 황두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황두는 청양의 품앗이와 대응되는 조직이다. 즉 두레는 김매기와 모내기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조직이지만, 품앗이는 농사일뿐만이 아니라 경조사에도 동원되기 때문이다. 두레는 마을 모든 가구에서 한사람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지만, 품앗이는 자율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황두는 자율적 참여라는 점에서도 품앗이와 동일하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부 학자는 두레가 쇠퇴하면서 품앗이나 고지가 발달하였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청양에서는 품앗이와 두레, 고지는 각기 기능이나 구성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조사와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청양의 두레 전체 제보자 명단

〈남양면〉

- 남양면 온직리, 강문순(여, 79세), 2007. 8. 9, 임장혁·김진영·이지아·김민우 조사.

〈대치면〉

- 대치면 구치리 구재마을, 황선구(남, 75세), 2007. 8. 12, 김진영·이지아·김민우 조사.
- 대치면 장곡리, 김박수(남, 70세, 두레 당시 꽃나비 경험), 2007. 8. 12, 김진영·이지아·김민우 조사.

〈목면〉

- 목면 화양리, 우봉식(남, 71세), 마을입구 정자, 2004. 8. 7. 성시우, 이정은 조사
- 목면 화양리, 우제두(남, 75세), 마을입구 정자, 2004. 8. 7. 성시우, 이정은 조사
- 목면 화양리, 윤흥수(남, 68세), 마을입구 정자, 2004. 8. 7. 성시우, 이정은 조사

〈비봉면〉

- 비봉면 강정리 갈마마을, 홍재성(남, 72세), 2007. 8. 13, 김진영·이지아 조사.

〈운곡면〉

- 운곡면 영양2리, 조수영(남, 89세, 現 신곡마을 노인회장), 2007. 8. 13, 임장혁·김진영·이지아 조사.

〈장평면〉

- 장평면 낙지리, 신영환(남, 80세), 2007. 8. 10, 김진영·이지아·김민우 조사.
- 장평면 낙지리, 심윤석(남, 80세), 2007. 8. 10, 김진영·이지아·김민우 조사.
- 장평면 낙지리, 원유동(남, 73세), 2007. 8. 10, 김진영·이지아·김민우 조사.
- 장평면 낙지리, 윤광길(남, 68세), 2007. 8. 10, 김진영·이지아·김민우 조사.

〈정산면〉

- 정산면 남천리, 김원중(남, 69세, 농업, 3대 거주,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2001. 7. 29. 정형호 조사.
- 정산면 내초리, 조종안(남, 82세), 2007. 8. 10, 김진

영·이지아·김민우 조사.

- 정산면 마치1리 감나무골, 김제삼(남, 74세, 청남면 천내리1구에서 출생), 2007. 8. 10, 김진영·이지아·김민우 조사.
- 정산면 마치1리 원마티 횃골동, 유병태(남, 72세), 2007. 8. 10, 김진영·이지아·김민우 조사.
- 정산면 마치1리, 유종희(남, 61세, 이장 역임 경험), 2007. 8. 10, 김진영·이지아·김민우 조사.
- 정산면 천장리, 김갈강(여, 80, 마치리 새말에서 출생, 황인섭의 부인), 2007. 8. 11, 김진영 조사.
- 정산면 천장리, 황인섭(남, 79세), 2007. 8. 11, 임장혁·이지아·김민우 조사.

〈청남면〉

- 청남면 내직리 2구, 김전회(남, 84세), 2007. 8. 10, 김진영 조사.
- 청남면 내직리2구, 이순욱(남, 89세, 3대 이상 거주), 2007. 8. 10, 임장혁·김진영·이지아·김민우 조사.
- 청남면 인양리, 김명하(남, 63세, 농업, 19대 거주, 연양 김씨), 2001. 7. 29. 정형호 조사.
- 청남면 인양리, 유진영(남, 80세), 2004. 8. 4, 정형호, 임시영 조사.

- 청남면 중산리, 이영재(남, 83세), 2007. 8. 10, 임장혁·이지아·김민우 조사.
- 청남면 천내리 2구, 윤정근(남, 74세), 2004. 8. 4, 정형호, 임시영 조사.
- 청남면 천내리, 김홍일(남, 87세), 김홍일씨 댁, 2004. 8. 6. 성시우, 이정은 조사
- 청남면 천내리, 김재흥(남, 75세), 김재흥씨 댁, 2004. 8. 6. 성시우, 이정은 조사
- 청남면 천내리, 전철규(남, 91세, 담양 전씨, 17대째 거주, 5년 동안 유사 지냄), 2007. 8. 10, 임장혁·김진영·이지아·김민우 조사.

〈청양읍〉

- 청양읍 군량리, 김동원(남, 78세), 2007. 8. 12, 김진영·이지아·김민우 조사.
- 청양읍 벽촌리, 차성옥(남, 86세, 남양면 용마2구 출생), 2007. 8. 12, 김진영·이지아·김민우 조사.

■ 편자 소개

임동권 충남 청양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저서『한국세시풍속연구』외 다수

정형호 충북 보은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저서『양주별산대놀이』외 다수

임장혁 서울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부교수
저서『기우제의 비교민속학적 연구』외 다수

청양의 두레

인 쇄 : 2007년 10월 25일
발 행 : 2007년 10월 30일
발행처 : 靑陽文化院(전화 : 041-943-4774)
발행자 : 정 재 권(전화 : 041-943-8889)
인쇄처 : 대명제책사(전화 : 02-924-5049)

※ 이 책은 군비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